

# 東大新聞

1998년(월) 2542년) 6월 1일(월요일) 제 1251호 주간 / 1964.1.1 등록번호 다-10 / 발행인 송석구 / 편집인 김주환 정택 / 부주관 조장택 / 편집국장 박상관 / 편집장 최정식 /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 (02) 260-3491 ~ 2 FAX (02) 279-1270 / 780-714 경복경주시 석장동 707 (0561) 770-2057

김주환  
김주환

음행(淫行)의 즐거움으로 스스로를 써는 것은 마치 누에가 고치를 짓는 것 같으나, 지혜로운 이는 능히 이를 끊어 버리고 보지 아니하여 온갖 괴로움을 없앤다. 법구경·애육품 32절

## 보리소

### 지금 여기의 자기 자신

정성본(불교문화대 불교학부)

‘잡아합경(雜阿含經) 36권에 부처님이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지나간 일에 대해 근심치 않고, 미래에 대하여 반겨 집착하지 않으며, 지금의 현재에 해야 할 일에만 바른 자세로 최선을 다할 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미래를 향해 생각을 치달리게 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근심 걱정하는 것은 마치 우박이 초목을 때리는 듯 어리석음의 불로 스스로를 태우는 것이다” ‘법구경(法句經)에도 “지금 여기에 살아.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의 현실에 살라”고 누누히 강조하고 있으며, ‘전유경(箭喻經)’에서는 독화살을 맞은 사람이 당장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비유로 설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불교는 지극히 현실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성을 한층 더 구체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전개하도록 강조한 생활종교가 선불교이다. 즉 지금 여기에서 자기 자신의 자와 함께 일상 생활의 매사(每事)를 자기와 혼연 일체가 되어 창조적인 삶으로 전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서 매일 평범한 일상 생활을 ‘지금 여기에서 언제나 새롭게 자기 자신을 되살리고 시시(時時)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정열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위대한 인간이다. 평범한 위인(偉人), 혹은 일상생활상의 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평범한 위인들의 삶은 언제나 “날마다 좋은 하루”로 만들어 살고 있는 것이다. 불교는 “지금”이라는 현재를 중시하고 있다. 특히 선은 언제나 “지금 여기의 자기”를 문제로 하고 있는 현실성의 종교이다. 선에서는 “지금 여기 자신”이 매사에 자각적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절대의 경지(峯頂)에 산다’라고 말한다. 경지(峯頂)에 산다는 것은 현재(實在)는 없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일도 지금, 여기, 자기의 일인 것이다. 자기의 참된 존재 삶은 지금 이외에 없는 것이며, 지금의 이 시간을 재쳐두고 자기 생활의 내용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실사(實事) 짧은 학생들이 장애 성인이 되어 자기가 갖지 못할 일을 하거나, 어떤 인물이 되기 위한 소망과 기대를 결코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의 그 미래를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된다. 언제나 지금 여기의 자기의 하는 일과 삶이 충실해 진실되고 절대의 경지에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꿈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과거나 미래의 일에 대한 쓸데없는 감상으로 지금 여기의 자기를 상실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각자의 본래성으로 지혜롭게 매사를 절제적인 경지로 만들어, 살아가는 충실함과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 고수동정

▲임기중(국어국문학부·국어국문학회 대표이사)=지난 5월30일부터 31일까지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 국어국문학 학술대회를 개최. ▲성용길(자연과학대)=지난 5월26일부터 29일까지 일본 교토대학의 ‘특별강연회’ 초청발표회 참석차 일본 교토대학 방문. ▲박영길(법학)=지난 5월24일부터 30일까지 제 68차 세계경제법학회 총회참석차 대만 방문. ▲홍승기(경제통상학부)=오늘(1일)부터 매주 월요일 방송되는 K-TV ‘IMF 1203’을 진행.

## 본사시령

◇임수승기자 ▲남정우(사회과학대 사회과학계열1) ▲박지연(사회과학대 사회과학계열1) ▲이미숙(사회과학대 사회과학계열1) 이상 6월1일자

## 알림

이번 1251호를 마지막으로 98년 1학기 신문 발행을 중단합니다. 다음 신문은 98년 6월31일자로 발행됩니다. 동대신문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한총련, 지난 29일 출범식 성사

## 경찰 강경책으로 기습 개최 ... 본교는 출범 선언대회 진행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손준혁·영남대 총학생회장 이하 한총련)은 지난 29일 서울대학교 도서관 앞 광장에서 제6기 한총련 출범식을 개최했다.

한총련은 당초 5월 30일, 31일 양일간 한양대에서 출범식을 개최할 방침이었지만 경찰의 원천봉쇄와 참가자 전원검거를 이유로 하루 앞당겨 약식으로 진행한 것이다. 서총련, 남총련, 부경총련 등 전국 7개 지역총련 3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출범식은 △의장총리식 △반미투쟁선 포 △출발선언문 낭독 △분화공 연 등의 순으로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손준혁 의장은 출범선언문에서

“국제통화기금을 앞세운 미국의 경제침탈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민생은 극한 상황까지 치달고 있다. 또한 정권이 교착되었음에도 국민의 초보적인 생존권적 요구와 민주주의의 요구가 유린당하고 있다”며 “출범식을 계기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 과감히 나설 것”이라고 표명했다.

출범식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은 서울대 상공에 헬기 3대를 띄워 해산을 종용하는 방송을 하는 한편 42개 중대 4천여명의 병력을 학교 주변에 투입시켜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한편, 학생들은 출범식 당일 오전 8시경까지 1호선 시청역 구내에서 경찰의 출범식 원천봉쇄

방침과 이적단체 규정에 합의하며 20여분 동안 집회를 벌이고 지하철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 선진전을 벌인 후 서울대에 집결했다. 또한, 오후 8시쯤 출범식 장소인 서울대에 들어가지 못한 경인총련 학생들은 천호4거리에서 집회를 가진 후 천호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전경들의 침탈로 철도를 달리는 추격전 끝에 10명의 학생들이 경찰서로 연행됐다.

한편, 본교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30분 불상 앞에서 한총련 출범선언대회를 가졌다. 약 2백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문예공연, 구운서 총학생회장의 발언 등으로 이어진 출범선언대회 이후 실천행사로 학내선전전과 녹두거리 시민선전전을 벌였다.



서울대에 집결한 학생들이 도서관앞에 모여 출범식을 진행하고 있다.

## 교수회 설문조사 난항 거듭

### 학교측·교수회간 이견 ... 결과발표여부 주목

본교 부속 불교종합병원건립과 관련, 학내 여론을 수렴하고자 교수회(회장=김익기·사회학) 주최로 실시되고 있는 ‘일산 불교종합병원 건립에 관한 의견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교수회 대의원에서 이번 설문조사의 실시여부가 ‘찬성’으로 결정되자 송석구 총장은 지난 5월29일 오전에 긴급학장회의를 소집, 교수회의 설문조사와 관련해 “병원건립 타당성에 대한 이해를 교수들에게 다시한번 주시시켜 달라”는 내용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르면 26일과 27일에 걸쳐 문과대, 사과대 등 단과대별 회의가 진행됐으며, 불교대의 경우는 질문내용에 공정성이 없다고 판단, 설문조사를 아예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주캠퍼스의 경우, 석림회측이 경주캠퍼스 교수회(회장=오출세·국어국문학)측에게 “이제와서 설문조사가 무슨 소용있겠냐”며 반대여론을 밝혔다. 한편 의대·한의대 교수들은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할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설문조사 반대 움직임과 관련해 교수회의 한 관계자는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것을 예측해 미리 손을 댄다는 것은 학내우려의 여론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근본적으로 사상 유례없는 여론조사이며 교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일산 불교종합병원 건립에 관한 의견조사’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불교계나 관련단체의 동참 저하 등 파장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학교당국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가 설문조사의 발표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며, 교수회 역시 이를 인정해 결과발표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경주캠퍼스 교수들에게 배포 설문지는 5월 29일 현재 서울캠퍼스는 2백 80부 중 1백 54부가 수거됐으며, 경주캠퍼스는 배포가 다소 늦어진 관계로 수거가 진행 중이다. 학교측이 밝힌 재정확보 계획, 건립일정, 경영 타당성에 대한 질문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이번주 중으로 나올 예정이며, 향후 결과발표에 대한 교수회의 입장은 오는 9일 열리는 대의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저서 및 번역서 출간시 연구비 지원

### 논문 게재로 지원은 올해 처음 실시 ... 연구·저술활동 활발 기대

연구교류처(처장=박기덕·수학) 연구부는 본교에 재직중인 전임강사이상의 교원에게 저서 및 번역서의 출간에 따른 연구비와 논문의 학술지 게재에 따른 게재료를 지원한다.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저서의 출판을 지원하는 저서 및 번역 연구비 지원사업은 본교에 재직중인 교원들의 연구·저술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촉

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현재 본교에서 지급되는 다른 연구비를 받고 있는 교원도 가능하며, 단독저자의 저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공동저술일 경우 본교교원의 역할이 책임임자이거나 참여자의 과반수 이상이 본교 교원의 저서인 경우에 한한다. 연구비가 지원되는 저서와 번역서는 오는 98년 9월 1일부터 99년 8월 31일까지 발간

되는 것이어야 하며, 저서부분은 4천, 번역부분은 3천을 선정해 지원하게 된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학술지 논문게재료 지원사업은 본교에서 발행한 ‘국내 및 국제 학술지 목록’에 수록된 학술지에 지난 3월 1일부터 오는 98년 2월 28일까지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국제학술지는 최대 30만원, 국내 학술지는 최대 20만원이 지원된다.

## 축구부 우승 눈앞에

### 오늘 3시 동대문 운동장에서

본교 축구부가 오늘(1일) 오후 3시 동대문운동장에서 건국대와 98춘계대학축구연맹전 겸 대학상비군 선발대회 패권을 놓고 한판 대결을 펼친다.

이번 축구부의 전국대회 결승 진출은 지난 70년 대학선수권대회 우승, 87년 같은 대회 준우승 이후 처음있는 일로 재학생과 동문, 학교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 열린 준결승에서 축구부는 연장후반까지 가는 접전 끝에 경기종료직전 신동수 선수의 골든골에 힘입어 경희대를 2:1로 제쳤다.

이와관련, 체육부의 한 관계자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한문희 박사 초청 특강

### ‘생명복제시대는 오는가’ 주제로

자연과학연구원(원장=이종훈·수학)은 오는 10일 오후 3시 개교 90주년기념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대덕 생명과학연구소 등으로 재직중인 한문희 박사를 초청해 ‘생명복제 시대는 오는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특강의 연사인 한문희 박사는 지난해 ‘대한민국 과학기술상’의 과학부문 수상자로, 그동안 KIST와 생명과학연구소 등지에서 생명과학을 연구해왔다.

이번 특강과 관련하여 이종훈 자연과학연구원장은 “블러의 탄생으로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생명복제와 유전공학에 대한 심도있는 대화의 자리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동국참사팀 인종 제2기 선발

### 9월1일부터 본격 교육 실시

학생처 취업과(과장=김병수)는 ‘동국참사팀 인종’ 제2기 교육생 50명을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지난 5월27일 선발·발표했다.

재학생의 전문능력과 인성을 배양하고자 지난해부터 추진한 ‘동국참사팀 인종제’에 선발된 학생들은 인성교육, 외국어교육, 사회봉사활동, 컴퓨터교육 등을 오는 9월1일부터 1년 동안 받게 된다. 한편, 동국참사팀 인종 제1기 교육생의 인성교육을 오는 29일부터 시작한다.

## 간급구조봉사대 교육 실시

### 소방학교서 화재진압등 훈련

참사탐색단(단장=송석구·철학) 소속 간급구조 봉사대는 지난달 30일 서울특별시 소방화교에서 △화재진압 실습 △기분응급처치 △인명구조 훈련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 정기노사협의회 전통 예상

### 상정안건에 학교측 배려 필요

#### 단체협약사항 등 미해결 ... 충분한 협의 선행되어야

직원노조의 계속된 요청 끝에 개최되는 정기노사협의회의 화가 △단체협약사항 불이행 △재년차학급 지급변경 △인사조치 불이행 △정보관리처 계약직 채용 등의 안건을 갖고 치를 예정이어서 노사간의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정된 안건 중 ‘단체협약 불이행’은 지난 97년 5월 1일에 확정된 보충협약을 지키고 있지않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도서관 부관장의 직급이 과장과 같은 4급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상하간의 혼란이 가중되자 기술직 3급을 신설해서 관계를 명확히 하겠다고 합의한 사항을 학교측이 1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사조치 불이행과 관련하여서 경주캠퍼스의 한 여직원이 97년 9월 인사에서 교무처 교무과로 발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근무지인 박물관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사기간 중에 불거져나온 자녀장학금 지급변경 문제는 이번 노사협의회의에서 큰 논란거리로 귀추가 주목된다. 학교장학금 지급규정 제 7조에 따르면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교직원과 법인

임원 및 법인이사 직원외 직계자녀(각 대학원 재학생 제외)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면제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학교측에서는 기성회비만 지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대학의 경우 본교뿐만 아니라 타대학에 재학생 및 해외유학자녀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추세여서 본교의 이런 움직임은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역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될 배경과 관련, 한 관계자는 “IMF 한파에 따른 인축제정” 때문이라고 간단히 말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와 직접적 연관이 있어 노조를 포함한 교수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학교측에서 계약직 직위를 채용하는 등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있어 이번 정기노사협의회의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직원노조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노조는 임금 동결 등 여러 부분에서 교통분담에 동의하고 학교측에 협조적인 자세를 취해왔다”며 “그런데 학교측의 이런 약속 불이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영실 기자

## 동대신문 기획광고

# 이 광고 보셨습니까?

한석규, 어떤 스님과 대나무숲을 거닐다. 그때 갑자기 “삐리리릭!” 핸드폰이 울린다. “무~!” (←핸드폰 끄는 소리) 그리고 한석규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또다른 세상을 만날때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 “삐리리릭!”

시도때도 없이 울리는 핸드폰. 삐삐 소리에 주위사람은 얼굴을 찌뿌립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도서관 입니까? 강의실 입니까? 그렇다면 잠시 꺼 두십시오.

동대신문사

### 도서관 철야개방

8일부터 18일까지

기말고사 기간을 맞아 도서관(관장=임호일·독어독문학)은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 좌석수 4백20석인 4층 제2열람실을 24시간 개방한다.

이번 철야개방과 관련해 도서관 열람과 최봉주 계장은 "열람실을 24시간 개방하게 되어 안전사고가 걱정된다"며 학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졸준위, 취업자료집 배부

오는 10일 각 과별로

10대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김기석·물리4 이하 졸준위)는 오는 10일 '98 취업자료집'을 4학년들을 대상으로 각 과별로 배부할 예정이다.

매경취업뉴스가 주관해 제작한 이번 자료집은 △기업선택에서 입사까지 취업을 위한 모든 것 △자신의 상품가치를 높이자 △나에게 맞는 진로는 △여학생을 위한 취업 가이드 △업종별 현황 및 취업전략 △부록 등 모두 6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업정보 및 면접 길잡이, 각종 시험안내 등이 주내용이다.

### 건전지 충전기 설치

학생복지증진 기대

관리처(처장=김종욱)는 건전지 충전기를 중앙도서관 1층 멀티미디어실 및 2·3층 열람실에 설치했다.

이번 조치로 일반 건전지도 충전이 가능하며 건전지 충전기를 이용하고자하는 학생은 건전지에 이물을 부착해 제출한 뒤 5시간후에 찾아면 된다.

에너지 절약 및 학생복지차원에서 설치된 건전지 충전기에 대해 관재과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의 이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각 건물 수위실마다 확대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오는 26일부터 하계수련회

김천 직지사서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동안 경상북도 김천에 위치한 직지사서에서 정기 하계 수련회를 실시한다.

본교 교학이념을 구현하고자 신규 교수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수련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일반 교수 및 직원들은 오늘부터 17일까지 정각원에 참가 신청을 하면된다.

# 생협 잉여금 처분안 또 무산

## 커피 및 국산차 인상판매·명진가든 직영등 결정

생활협동조합(이사장=김진철·정치외교학 이하 생협)은 지난 27일 생협 회의실에서 7차 이사회를 열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6차 이사회에서 미결된 97년도 이익 잉여금 처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학생이사들이 회의자료 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안을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 다음달 열리는 8차 이사회로 연기됐다.

잉여금처분안 중 사무국 측과 학생이사들이 의견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임의적립금=생협사무국측, 20%이상, 학생이사측-10%이하 △학교전입금(복지환경개선기금)=생협사무국측-20%이상, 학생이사측-10%이하 △조합원배당=생협사무국측-출자액에 비해 은행정기 이자율

20%이하, 학생이사측-잉여금의 20%와 출자액에 비해 은행정기 이자율 20%이하 등이다. 이는 지난 6차 이사회때 보았던 의견차이를 전혀 조율하지 못한 것이다.

이 밖에 △자판기 커피 및 국산차 가격 인상 △운영 자문 위원회 생협위원 선정 △98년 임대 계약 만료 매장 처리 방안 등의 안전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자판기 커피 및 국산차 가격은 환율 상승으로 인해 원가가 현재 1백20원으로 판매가 1백원보다 원가가 높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9월 1일부터 기존 1백원에서 1백50원으로 인상 판매하는 원칙에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9월 1일 기준으로 원가가 하락할 경우, 재논의 하여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학교측과 행정상의 문제를 논의하는 운영 자문 위원회 생협위원은 △교원단위=미결정 △직원단위=이건배(문과대 교학 계장) △학생단위=한철희(학생복지위원장, 컴공4) 등이 추천돼 이사들의 동의를 얻어 결정되었다.

이외에도 오는 30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임대매장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명진가든과 선수식당은 생협 직영으로, 동국관 문구점과 다함관 문구점은 1년간 계약을 연장, 컴퓨터점은 공개 입찰을 통해 업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 3월 23일 가격이 인상된 뒤에도 음식질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은 명진가든의 음식 질 향상과 가격 재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고장난 터치스크린 '빛좋은 개살구'

## 관리소홀로 2주이상 방치 ... 2학기까지 새 기계 도입 예정

수강신청, 성적 등 각종 학적사항 및 취업정보를 한 곳에서 알 수 있는 터치스크린이 현재 2주이상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어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터치스크린은 본관을 비롯한 도서관, 해화관에 각각 1대씩 배치되어 있으나, 현재 학생들의 이용이 가능한 곳은 해화관 한 곳에 불과하다.

다. 잦은 고장에도 불구하고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보관리처의 한 관계자는 빈번한 고장의 원인을 오래된 부품, 내장 컴퓨터의 고장, 터치스크린 자체의 문제 등으로 보고 있다. 또한 관리의 소홀과 사용자의 부주의도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기까지 터치스크린 전체를 새로운 기계로 대체할 것이며, 프로그램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설치 대수도 대폭 늘릴 것으로 보여 학생들이 동야의 곳곳에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젠 화장실에서 낙서를"

## 동연, 낙서문화 조성 ... 의견수렴장 기대

동아리연합회(회장=박영민·건축4 이하 동연)은 오늘(1일)부터 '대학문화찾기'라는 기조로 학생회관 화장실 각 칸마다 대자보를 붙여 학내 낙서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주 주제는 학생회관 24시간 개방이며 동연은 앞으로 사회문제 및 학내문제와 관련한 주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학생회관 24시간 개방과 관련한 의견수렴 내용은 오는 15일 발간예정인 '동연소식지'에 게재된다.

이에 대해 동연의 한 관계자는 "학내문제 및 사회적 문제를 구체

화시키는 작업이 될 것"이라며 "2학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는 19일 고시장학생 선발

원서접수는 10일부터

계산고시학사(사감=손성·법학)는 오는 19일 98학년도 2학기 고시장학생을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계산고시학사 사무실에서 받으며 접수시 학생증과 사진 1매, 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단, 복학예정자의 경우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춘계 학술발표회 개최

#### 29일 덕암세미나실에서

대학원 춘계학술발표회가 지난달 29일 오후 1시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동아시아 학문의 소풍구조'라는 주제로 실시된 이번 학술발표회에는 대학원 출신 박사학위 취득자와 교수 등이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행사는 △기조강연 및 발표 △종합토론 △학술연구기회단 발표 예비모임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대학원생들과 본교 출신박사 졸업자 및 강사들로 구성된 학술연구기회단의 발표는 동원학술협의회(가칭)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모순... 지난달 29일 한총련 출범식 후 본교에서는 민족동국 한총련 출범선언대회가 열렸다. 학생들이 선전전을 펼쳐며 녹두사거리로 진출하려 하자 전경들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 남대철 기자

### 회전무대

보복

O...허를 찔렀구만! 지난 29일 오후 서울대에서 기습적으로 열린 한총련 출범식은 그야말로 경찰을 완전히 따돌리고 말았는데.

출발식이 진행됐다는 소식에 급기야 경찰은 서울대 주변에 4천여명의 전투경찰을 배치했다고.

이에 출범식에 참석했던 한 학생 한마디 "우리가 허를 찔렀으니 저들은 공안바람으로 맞대응 하겠군!"

### 터치터치 002

O...본관과 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터치스크린이 고장난지 2주가 넘도록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데.

이에 현재 사용 가능한 곳은 해화관 한 군데 뿐이라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고장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관리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에 답답한 한 학생 외치길 "터치스크린 고장신고는 터치터치 002로(?)"

### 취한다

O...'앗! 이젠 무슨 냄새' 지난 27일 해화관 앞에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해 많은 이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했으니.

이유인즉, 더운 날씨에 해화관 옆쓰레기 더미를 서둘러 수거해 가지 않아 매년 여름이면 악취가 진동한다고.

한편, 해화관 앞에는 전자계산원 '모는 대동제'로 주점이 열리고 있었는데.

이에 대동제를 구경하러 온 한 학생왕, "술 마시러 온 손님들, 술에 취하는지 약취에 취하는지 알뜰 어지럽겠군요"

### 스캔들

O...여기서도 광! 저기서도 광! 인도의 전격적인 핵실험에 이어 얼마전 파키스탄도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해 다시 핵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데.

미국을 비롯해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강대국들은 경제 제재 운운하며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이에 본 회전무대자 한마디 "자신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

# 노학연대실천단 천막농성 철수

## 학생운동탄압의 부당함 알려내

총파업 사수와 학생운동 탄압을 꾀를 위한 노학연대 실천단(단장=박영민·건축4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중앙도서관 앞에서 실시해온 천막농성을 지난 29일 해단식을 치른 뒤 철수했다.

지난 22일부터 일주일동안 계속된 천막농성에서 노학연대 실천단은 학내 선전전 및 대자보작업을

통해 총파업 투쟁의 정당성과 노학연대의 필요성을 학생들에게 알리냈다.

이와 관련, 박영민 노학연대 실천단장은 "노동절 집회 이후 가중된 학생운동 탄압의 부당함을 학내에 알리고자 주력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학내 선전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혈액뱅크, 부종철군에게 헌혈증 도움

## "계속적인 지원사업 퍼 나갈 터"

가칭 동국혈액뱅크는 지난 27일 아버지가 백혈병으로 입원중인 부종철(영문4·휴학)군에게 헌혈증 30장을 지급했다. 현재 부군의 아버지는 서울대 병원에 입원 중이며, 이 헌혈증은 수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직원노조 최일우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헌혈증이 필요한 학내구성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혈액지원사업을 퍼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국혈액뱅크는 교수회, 직원노조, 총학생회, 대학원 총학생회 등 학내주체가 뜻을 모아 설립한

단체이다.

### 학술문화관 조경공사

금주중 실시

관리처(처장=김종욱) 시설과는 학술문화관 정문 좌측 경사면 조경공사를 이번주 중으로 실시한다.

이번 공사는 대략 1개월 정도 걸릴 예정이며 철쭉, 자하순 등의 나무를 심고 자연석을 배치한다.

한편, 과학관 뒤쪽 벤치와 파골라(정자) 교체 공사도 이번주 중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 수강신청안내

- 기간 : 98. 6. 16(화) ~ 19(금), 4일간  
※ 단, 6. 16(화)일은 1학년 학생만 신청가능함.
- 장소 : 교내 컴퓨터실습실
- 대상 : 98학년도 1학기 재학생 및 복학생 전원
- 수강신청원 고부 및 접수 : 소속대학 교학과, 학부(과)·계열
- 유의사항
  - PC 수강신청시 교과목의 학습번호, 강좌번호, 학점, 담당교수명 등을 정확히 확인할 것.
  - 본 수강신청에 의해 분반 및 폐강과목이 결정되므로 필히 기간내에 모든 재학생은 수강신청을 하기 바람, 금번기간 중 수강신청하지 않음으로 인해 추후 수강신청정정시 인원제한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람.
  - 1, 2, 3학년 대상교과목을 신청한 재학생은 성적 상대평가제의 적용을 받게되므로 수강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 98-2학기 종합강의시간표는 소속 학부(과)·계열에서 교부 받을 것.
  - 각 대학 교학과 및 학부(과)별로 개설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비치하였으므로 수강신청시 활용하기 바람.
  - 최초수강신청시 1학년 교필 중 실습과목과 교양선택, 전공 중 일부강좌에 대해 인원제한되므로 신청시 유의할 것.
  - 원격수강신청을 시행하니 희망하는 다음을 참고할 것.
    - 원격수강신청: 학교외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PC를 Dial-up Modem을 통해 학교 LAN에 접속하여 수강신청하는 방법.
    - 신청장소 : 해화관 1층 정보관리처 상담실(문의전화 : 260-3488, 3489)
    - 신청일시 : 98. 6. 16(화)~19(금), 4일간
- 학업지도교수 및 학과책임교수의 지도와 확인을 거친 후 수강신청원을 지참한 경우에만 실습실 출입이 허용되니 반드시 수강신청원을 지참하여 입장바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강의시간표를 참조바람.

교무처장	관리처장
------	------

## 낙산학사 개장

- 개장기간 및 일정 : 98. 7. 1(수)~8. 18(화)
- 신청서 접수기간 : 98. 6. 15(월)~6. 17(수)
- 실배정은 선착순 접수순으로 배정하며 별도의 추첨은 하지 않음.
- 접수처, 사용관리비 및 캠퍼스별 배정 내역

실별 수용인원	20명	교직원실	5명	
기준(사용일수)	3박4일	사용관리비	₩1,500/1인 1박 (예약금 ₩10,000/1실)	
캠퍼스별 배정	서울	경주	서울	경주
	8실	2실	12실	2실
접수과	학생과 (☎260-3047)	학생과 (☎770-2048)	관재과 (☎260-3081)	관재과 (☎770-2083)

- 유의사항
  - 본교 재학생(타교생 이용 불가) 및 교직원 가족외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학생실의 예약금은 학생과 접수시에, 교직원실의 사용관리비는 사용 7일전 관재과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시는 포기기간 주하고 납부된 사용관리비 및 예약금은 사용일이 지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취사도구는 개인일 짐참 하여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관재과나 학생과로 문의바랍니다.

## 하계 방학 외국어교육원 특강

구분	ENGLISH CONVERSATION				TOEIC	LISTENING
	BASIC	I	II	III		
1차	09:00~10:30 Joseph Schowler (강의실 A)	Paul Treadway (강의실 B)	Bruce Dawson (L309)	Paul Leslie (L310)	Troy Body (LAB A)	Eric Prochaska (LAB B)
	10:40~12:10 Joseph Schowler (강의실 A)	Paul Treadway (강의실 B)	Bruce Dawson (L309)	Paul Leslie (L310)	Troy Body (LAB A)	Eric Prochaska (LAB B)
2차	09:00~10:30 Angela Gatos (강의실 A)	Paul Sather (강의실 B)	Nicholas Garrison (L309)	Bridget McGrath (L310)	Leon Kaye (LAB A)	Irene Hanssen (LAB B)
	10:40~12:10 Angela Gatos (강의실 A)	Paul Sather (강의실 B)	Nicholas Garrison (L309)	Bridget McGrath (L310)	Leon Kaye (LAB A)	Irene Hanssen (LAB B)
수강료	50,000원				30,000원	30,000원
기간	1차 : 98. 6. 29~7. 24 / 2차 : 7. 27~8. 21					
접수처	외국어 교육원(동국관 L동 2층)					
접수기간	98년 6월 8일부터(선착순 마감)					

## 동국참사람봉사단 단원모집

동국참사람봉사단에서는 98학년도 여름방학 사회봉사단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대상 :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재학생, 교수, 직원
- 신청서 접수기간 : 98. 6. 8(월)~6. 19(금)
- 봉사활동기간 : 98. 6. 29(월)~98. 8. 31(월)
- 접수처 : 학생처 교학과 (☎ 260-3050)
- 봉사결과 : 기간내에 봉사활동을 마친 학생은 평가결과에 따라 학점(교양선택, 1학점Pass)을 부여하며, 취업·진학을 위한 사회봉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개인 및 단체접수를 환영합니다.
- 봉사대상단체와 봉사기간 및 시간을 본인이 자유롭게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봉사내용은 각 대학 교학과 및 사회봉사계시관(강학과, 도서관, 본관, 학생회관, 동국관)에 공고합니다.
- 동국참사람봉사단은 더불어사는 사회를 만드는 동국인들이 함께합니다.

### 동국참사람봉사단장

## 여름특강

- 기간 : 98년 6월29일 ~ 7월31일
- 접수기간 : 98년 6월10일 ~ 98년 7월3일까지
- 공개강의 : 98년 6월29일 ~ 7월1일까지
- 강의료 : 20,000원
- 접수처 : 구내서점

### 강의시간표

시간	K306	K308	K309	K207	K307	K305	K205
8시~9시50분	박노빈 토론 L/C		코야 토론		시사 신경향 토론		
9시~10시50분		고려원 영어수업		전구 시스템 토익			
10시~11시50분	일본어 백기		안박사 토익		다국어 IVY 토익	CULT ENGLISH	
11시~12시50분		아카데미 토론		라이브 토익 (매일)			

### 열네번째 학생복지위원회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접수

- 대상자 : 98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사범대학 및 비사범계 교과과정 이수자.
- 자격
  - 학적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춘 자.
  - 사범계 : 교과과목 22학점,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포시과목 관련 기본 이수영역별 상응과목 이수자로 교과과정 및 전체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BO) 이상인자.
- 접수기간 : 98. 6. 8(월)~6. 12(금)
-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소정양식)
- 교부 및 접수처 : 사범대 교학과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며, 졸업후 3년이 경과하면 무시험검정 자격이 소멸하니 대상자는 유의하기 바람.

### 사범대학장



동약로



비에

"하루 평균 서울역에 기거하는 노숙자는 8백명에서 1천명이고, 그 중 90%가 실직자들이다"라고 언론들은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그 현장이 지난 24일 서울역. IMF가 몰아친 속도만큼이나 빠른 부산발 0시 25분 서울행 새마을호 막차가 도착하자마자 철도박물관 아래를 제외한 모든 대합실이 봉쇄된다.

새벽이 되어 기차가 다니지 않는 서울역 대합실에는 때문은 구두, 구겨진 양복, 몇일째 안감은 것 같은 머리카락, 삶에 절름은 것같은 눈을 가진 홈리스(homeless)족들이 잠자리를 찾아 헤매인다.

대합실에 있는 80여개의 의자는 그날 모여든 사람들의 잠자리로 금방 변해버리고, 의자를 둘러싼 바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군데군데 무리지어 누워있다.

역내의 대합실을 지나 지하도에 접어들자 음식물로 인한 악취와 지하도에서 풍기는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지하도 주위에는 먹다남긴 라면, 소주병, 캔과 과자봉지, 구토물들이 누워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널려져 있다.

지하도 구석에서는 찌들은 양복을 입은 중년의 한 남자가 경계어린 눈빛으로 파자를 입에 급하게 넣으면서 허기를 때운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지나가던 행인들은 눈길을 건네주면 전연이라도 되는 듯 고개를 숙인채 자기의 갈길을 재촉한다.

울씨년스럽기만 하던 서울역과 지하도에도 차디찬 새벽의 어둠이 깔리고 아침이 다가오자 누워있던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잠자리에서 일어나며 이불을 개는 사람, 신문지를 접어 가방에 넣는 사람, 흙 뭍은 바지를 털는 사람,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 올 그 자리를 뒤로한 채 떠나가 버린다.

이러한 상황과 대조적으로 경주캠프에서 펼쳐진 대동제의 마지막날인 지난 22일, 학교 주변은 술과 음악으로 얼룩져 있었다. 술취해 제대로 걷지 못해 쓰러지는 사람들, 2차를 외치며 다른 주막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술취해 길바닥에서 누워자는 학생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술취해 길바닥에 누워자는 학생의 모습과 지하도에 누워있던 그들의 모습은 왜 그리 달라보이는 것일까? 박양우 기자

기획-통일 시리즈 이번 제1251호를 끝으로 98학년도 1학기 신문발행을 중단하는 관계로 시리즈 세번째와 네번째를 같이 실습니다.

글 쓰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IMF시대의 남북관계와 동북아질서
2. 식량난을 통해본 북한의 실상
3. 김대중정부의 통일정책 진단
4. 대학생·민간단체의 통일운동 움직임

# 자주권수호차원 한반도 통일 접근

변화와 개혁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와 여야간 정권교체로 상징되는 1997년의 역사적 의미는 변화와 개혁의 수밖에 없다. 폭력적 수단에 의하지 않고 선거라는 헌법적 방법에 의해 야당이 집권하게 됨으로써 적어도 외형적 민주주의의 실천을 경험하였고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는 새로운 권력주체로 하여금 자신의 정치적 강령과 프로그램들을 실천할 수 있는 나름의 장을 마련해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누적돼온 경제실패의 결과로서 소위 IMF체제라는 외세에 의한 경제신탁통치의 아픈 경험은 기존의 경제질서의 한계와 파행성을 적극적으로 치유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변화는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서도 화두일 수 밖에 없다. 개혁과 한반도 통일 문제는 동전의 앞뒷면이나 다투어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1년 안에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하였고 그 방법을 기본합의서의 복원에서 찾고 있다. 이 공약만 지켜진다면 남북관계와 한반도 통일문제가 변화의 불결을 탈 수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 산정부의 남북대화 전망

김대중 정부의 등장 그 자체가 통일정세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였듯이 국민정부는 출범하면서 △무력불사용 △흡수통일 배제 △남북화해협력 추진 등 대북 3

원칙을 내세웠다. 이에 화답이나 하듯이 올 해 신년사실에서 북한은 김대중 정부에게 미군철수에 대한 의지 표현을 요구하지 않았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통일된 이후에도 동북아의 세력 균형을 위해서 주한미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북한이 정치·군사 우선주의라는 과거의 입장에서 상당히 선회한 것은 심각한 경제위기와 남한의 흡수통일 배제방침 전명으로 따른 변화로 해석된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4자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이 잇달아 열렸다. 특히, 지난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대북 비료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차관급 남북 당국자회담은 3년9개월 만에 재개된 민족적 화해였다. 양측 모두 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담은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 회담 결렬의 원인은 남한의 '상호주의'와 북한의 '단일외제 원칙' 간의 충돌이었다.

한편, 회담결렬에 대해 남한이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에 너무 집착해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산가족 상봉문제가 인도주의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게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체제 유지의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북한의 대남·통일정책의 기조는 체제보장, 평화공존, 협력관계 구축으로 요약된다. 이 3요소는 그 순서대로 중요성을 갖는다. 체제 보장을 위한 협력 제



지난 4월 북경에서 열린 남북차관급 당국회담에 참석한 정세현 통일부차관(왼쪽)과 전금철 책임참사(오른쪽).

안은 수용하겠지만 그 보장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받아들일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와 남한의 입장을 고려할 때 그리고 특히 남북관계개선과 민간 교류협력에 대한 양쪽, 특히 우리쪽의 의지가 확고하고 과거와는 달리 회담결렬 이후에도 상호비방이 격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남북대화는 곧 재개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성급하게 결론짓지 말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외적 조건이나 남북당국의지 등의 측면에서 지금까지 좋은 조건에 호인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남한은 현재 군사자주권마저 없는 상황에서 경제자주권까지 사실상 상실하였고 북한 역시 현재의 경제난 타개를 위해 IMF의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모두 미국이 주도하는 IMF의 지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북한의 식량난과 남한의 달러난 그리고 민족문제 모두 외부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입장에서 변화와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놓여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 및 한반도 통일 문제의 변화는 자주권 수호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남북경협도 'IMF 해방구'로서 의미가 부여되어야 한다. 즉, IMF체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남북경협을 통한 시장의 확대 및 남북한 단일경제권 형성, 그리고 남북한민족이 공동으로 IMF체제를 극복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전환과 정책개발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난 2월10일 중국에 가서 밝힌 6개국 선언도 남북 직접대화 및 한반도 문제의 남북주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인식으로 평가된다. 또한 최근 지난 91년 이후 중단됐던 '고위 군사체제의 복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북한군과 유엔군사령부의 장성급 대화재개는 한반도 위기에 대한 '주체적 관리'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대륙정책의 첫 결실로 평가된다. 김대중 정부가 유엔사와 북한군 사이의 대화를 적극 추진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은 북한의 요구를 일부 들어주는 한이 있어도 한반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를 남의 손에 맡겨 놓을 수 없다는 자주적 인식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배 근  
국대대 경성학부 교수

# 관용과 공존 기초한 통일운동 필요

등장과 김정일체제의 본격화로 통일논의를 위한 무대가 마련되고 있고, 중소기업이나 언론사, 종교인들은 그 무대에서 상영할 극본을 다듬고 또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무대에 올라서기 위한 행렬이 길게 있는 상황이므로 진보진영만이 복되고 장구치던 시절은 끝난 것이다. 진보진영이 따로 차려놓은 무대가 빈약해 보이는 상황에서 귀결된다면 그것은 진보적인 통일운동의 고별을 알리는 무대가 될 것이다.

이제 통일은 더 이상 그 자체로써 진보이거나 더 이상 변혁의 수단이 될 수 없다. 통일이 민족의 과제이고 통일을 통해서 민족의 변혁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시대 최고의 이상이고, 그래서 마치 동산이 땅과도 같이 모순 세력들이 통일의 길로 나서고 있다. 통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진보세력뿐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하는 세력들과 함께 정전, 사상, 종교, 지역, 성별을 떠나서 힘을 합하고,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이룰 것인지, 통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합의해 나아가 할 때이다. 진보적인 세력들은 통일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관용과 공존에 기초한 통일정책의 수립이 중요함을 선도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과거 통일에 대한 논의조차도 자유롭지 못하던 시절에 선도적인 통일투쟁을 통하여 모든 세력들을 통일운동에 동참하도록 촉구하고 이끌던 운동방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통일문제에 있어서 진보진영이 선도적으로 투쟁해서 만들어진 공간에서 제한적인 목소리를 내던 세력들도 이제는 독자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의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진영의 선도성은 의미가 없어졌다. 진보진영의 선도성은 통일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각 분야에서 통일운동이 활성화되도록 이끌었던 방식에서, 각 분야와 세력들이 자율적으로 통일 문제에 개입하되, 관용과 공존의 정신에 기초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이미 전문성과 공존에 기초하지 않은 통일운동은 통일운동이 활성화되도록 이끌었던 방식에서, 각 분야와 세력들이 자율적으로 통일 문제에 개입하되, 관용과 공존의 정신에 기초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기에 맞는 선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관용이란 가진자가 못 가진자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존이란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의 결과이다. 남북한이 서로 다른 제도에서 50년을 살아왔다는 차이를 남북한의 모든 세력들이 인정하고, 그 차이를 틀린 것으로 치부해서 배타시키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존하는 미래를 모색하는 것이 통일의 기초가 된다. 차이와 공존의 정신에 입각하지 못한 사회 각분야의 남북교류나 통일과정에 대한 참여는 자칫하면 통일을 재앙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과거 통일에 대한 초보적인 논의조차도 봉쇄되어버린 상황에서는 '모든 통일은 선'이었다. 통일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반통일세력, 반민주세력, 반민족세력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모든 통일은 선이 아니다. 관용과 공존에 기초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다. 이제 통일운동은 반통일적인 요소들을 약화시키는 것과 함께 너나 없이 통일을 외치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재앙으로 치달아

버릴 수도 있는 비극을 예방하기 위한 통일운동을 해야 한다. 즉 과거에는 통일에 나서지 않는 세력들에게 '모든 통일은 선이다', '조국은 하나다'를 외치면서 통일이 나설 것을 촉구하고 반통일정권과 투쟁하는 통일운동을 하였지만, 이제 너무나 이 통일을 말하고 무차별적으로 통일과정에 진입하려는 상황에서, 관용과 공존에 기초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라는 것을 외치면서, 통일의 속도를 조절하고 비판적인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운동을 해야 한다.

이러한 기초 아래서 현시기에는 화해협력과 평화정책을 통일운동의 당면한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민간통일운동은 실질적으로 통일정세에 개입해 들어갈 수 있는 전문성과 국민적인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 무능력하면서 관성에 젖어 있는 통일운동은 도태되고 만다. 항의방문이나 시위와 같은 저항성 운동방식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저항성 운동방식은 더 이상 통일이라는 새역사 창조를 수행할 수 없다. 반대에서 비롯되는 운동이 아닌 창조적 목적이 계기가 되는 통일운동을 해야 한다. 학생운동의 통일운동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김 창 수  
통일및이 늦봄 문익환 기념사업 자료실장

# 한총련 출범식 파행적 개최

## 상명하달·중앙집중적 조직운영 개선돼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손준혁) 영남대 총학생회장 이하 한총련)은 당초 5월 30일, 31일 양일간 한양대에서 개최

중앙위의 긴급상명하달방식으로 치러진 이번 출범식은 한총련이 '학생 대중운동 조직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했다.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해 집회장소였던 서울대의 총학생회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출범식을 했음은 물론 서울대를 비롯한 중앙대, 홍익대, 국민대 등 서울시내 7개 대학이 출범식 불참을 밝히는 등 진정한 학생운동조직체로서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출범식 후 오후 8시에 천호동 4거리에서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폐와 출범식 성사를 알리는 선전전을 벌인후 천호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학생과 정전간의 철로를 뛰어다니 추격전은 12명의 연행자를 낳았다.

한편, 출범식 다음날인 30일, 서울대와

연세대에서 하루를 지낸 학생과 미처 출범식장에 참가하지 못한 학생들은 서울역에서 치러진 범국민대회에 참가해 한총련 출범식을 성사했다는 선전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약 30여명의 학생들이 연행되고, 오전 1시에는 서울 잠실지역에서 출범식 성사를 알리는 선전전과정에서 30여명의 학생이 연행되는 등 출범식과 관련해 연행된 학생이 전국적으로 약 1백90명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과 제6기 한총련출범식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방침으로 서울시내 곳곳에서 불심검문을 벌이는 등 정부의 지나친 탄압도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날 22일 경찰의 원천봉쇄로 파행적으로 치러진 한총련 대의원대회와 더불어 이번의 한총련 출범식은 1백만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운동조직으로서의 위상을 잃은 것이 사실이다.

상명하달식의 중앙집중적 조직 운영과 과거의 시형착오를 그대로 답습한 제6기 한총련 출범식은 비록 성사는 됐지만 진정으로 학생들을 이어주는 구심점으로서의 자리매김에는 실패했다고 밖에 볼 없다.

사회부

# 범국민 대회



▲ 이날 대회에 참가한 1천5백여명의 시민과 노동자들은 고용안정, 실업대책, 재벌개혁, IMF 재협상 등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남대철 기자

▲ 행사장소인 서울역광장을 전경들이 봉쇄하려 하자 한 할머니가 이를 막고 있다.

언론의 무절제한 홍보속에 미래희망 사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대학생 벤처기업' 실제 창업자와 창업 준비자를 만나 현재 상황과 희망사항을 들어보고, 정부 육성인의 허와 실을 짚어본다. 편집자

# 대학생 벤처기업 육성안 “밑빠진 독에 물붓기?”

## 벤처 기업이란 무엇인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유식한 창업 용어인 벤처 기업 또는 벤처 창업은 한마디로 영문을 잘못 번역한데서 비롯되었다. 영어로 Venture Creation은 '기업을 만들다', 즉 '창업하다'라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벤처 창업이라고 번역되면서 벤처 기업이라는 단어도 파생시켰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벤처 기업은 컴퓨터관련 소프트웨어나 정보통신 분야의 기업 창업으로 잘못 번역되어 국가의 모든 정책이 엉터리로 수립되는 혼란을 가져왔다. 벤처 기업은 원어 그대로 기업을 만든다는 뜻 이상의 그 무엇도 아닌 것이다.

## 대학생 창업이 갖는 의미

애플의 스티브 잡스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대학을 중퇴한 것 때문에 정부나 대학교 당국은 대학생 창업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실정에

서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창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필자는 대학생 창업 인큐베이터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러나 창업 인큐베이터 시스템을 확인한 후 깜짝 놀랐다.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는 했지만 기술 이외의 경영상의 문제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자칫 잘못하면 학업도 기업가로서의 성공도 모두 놓치게 될 것이다.

## 창업에 대한 언론 보도의 문제점

IP창업과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언론 보도의 경우도 큰 문제이다. TV에서는 IP사업이나 인터넷상거래 창업에 486 컴퓨터 한 대와 스캐너 하나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터넷 상거래의 경우 2천만원이 필요하고 IP의 경우는 1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언론 보도의 문

제점은 창업자를 위하기 보다는 시청률 때문에 창업 프로그램을 구색맞게 기획한 다는데 있다.

## 창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정부에서는 미국의 대공황때 효과를 본 대학교육을 본떠 창업기술 그리고 각종 기술 교육에 1조원에 가까운 많은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창업 교육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한번도 제조업을 해보거나 장사를 해보지 않은 강사들이 실업자나 대학생들에게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의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이 무료로 실시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수강생들의 목숨을 건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대학생 창업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려면

첫째,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있어서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 사무실을 의무적으로 입차하게 하는 사업자등록제도를 개선하여 하숙집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자의 고정비용을

줄여주어야 한다.

둘째, 창업교육은 다양한 벤처마킹을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또는 업종에 대한 그리고 특정 입지에 대하여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수많은 분석을 실시하여 사업 경험을 쌓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에는 미국이나 독일보다도 창업지원제도가 많이 있지만 실제 창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통계 또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넷째, 자금지원보다는 창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돈이 많다고 사업자금을 밀어준다고 해서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양갑모

한양대 산업공학과 강사

## 창업 길라잡이

대학생 창업의 필수 요소는 아이디어, 자본금, 창업에 대한 열정 이 세가지이다.

그럼 이 세가지 요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아이디어 구상에서 노란불이 들어오면 이젠 그 아이디어가 기존의 시장 접근에 용이한지 정말 기발한지 어떤 업종에 활용을 하면 적합하겠는지 검토를 해야한다.

위 사항의 검토가 완료되면 자신이 창업하게 될 장소를 결정해야 되는데 '목이 좋아야 한다'는 옛말처럼 좋은 목을 찾아 시장조사를 해야 한다. 그 위치에서 경쟁업체, 하루 예측 손익수를 확인한 후 장소가 결정되면 자금조달이라는 난제가 남아있다.

자금조달과 더불어 생각해야 할 것이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 등을 활용해 자금조달 후 예상수입과 지출을 잡고 손익분기점을 찾는 것이다. 변수가 무한히 작용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덧붙인다면 자신의 창업이 사회에 공익이 되는지 혹은 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해 보는 장기적인 안목을 길러봅시다.

위 같은 사항들이 갖춰지면 시장분석, 기술분석, 재무분석, 공익성분석, 수익성 분석 등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 지는 것이다. 유의할 점은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갖고(기술 분석 부분) 자신의 예산 수익을 가능함에 있어 객관성을 부여해야만(재무분석 부분) 좀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자, 사업을 시작할 맘과 계획이 다 준비됐다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러가자. 필요한 준비물은 주민등록증과 도장, 딱 2가지이며 확실히 해야할 것은 자신의 창업점포가 자가소유인지 점세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자 등록은 자신이 창업을 원하는 관할구청 세무서에서만 할 수 있다.

등록이후 2주 정도 시간이 흐르면(2주간은 세무서에서 창업점포를 방문 실제조사를 한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 돈나가는 부분에 있어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시한번 각오해야 한다.

자 그럼 아이디어 물색부터 시작해 볼까? 최진 기자

## 저음음 담보로 미래를 대충반은 사람들

### “예비사장님을 찾습니다”

박병록(전통·3)군은 '창업'이라는 글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달려간다. '어제는 창업설명회를 들었고 오늘은 창업로드쇼를 보러 갈 것이며, 내일은 학내 창업 동아리 개설을 위해 사람을 만나야 한다'라는 그의 일정보 속에서 '창업을 향한 의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 덕에 현재는 학생이면서 동시에 어엿한 컴퓨터 판매회사의 창업자이기도 하다. 동아리를 준비하고 있는 그를 만나보았다.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한마디로 내 일을 하고 싶었다. 나 같은 경우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4년간 했는데, 비록 월급은 적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하는게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학생 신분으로 창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뭘니뭘니 해도 자금조달부분이다. 최소한 직장을 다닐 때에는 은행에서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학생은 대출받는 게 하늘의 별 따기다.

-공부를 하면서 바로 현실생활에 이론을 적용하는 격인데.

=살아있는 공부, 보이지 않는 공부

를 하고 있어 좋은데, 이론과 현실의 거리가 너무 멀다. 사업자 등록과 같이 창업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에도 교과서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게 많다. 그래서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커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창업동아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학교 같은 경우 타 대학에 비해 창업에 관한 관심이 저조한 편이다. 그래서 꼭 창업동아리를 만들 것이다. 가칭 창업연구회라고 지었는데... 경주캠퍼스 및 다른 학교와의 교류사업, 매일경제·정보통신 논문 공모, 창업경연대회 참가등 대외적으로도 도전해 볼 생각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학교와 학생들의 관심없이는 힘들다. 마지막으로 학교와 학생들이 '창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박영실기자



벤처 동아리로 선정된 경주캠 '사이버 관광정보'의 부회장 문찬호씨를 만나보았다.

-벤처동아리 '사이버 관광정보'를 창립하게 된 계기는

=벤처 기업과 동아리 육성사업이 활발한 현 시점에서 젊은 패기로 '벤처'라는 모험사업에 뛰어들고 싶었다. 최근 연구소로 승격된 관광정보센터의 지원이 상당히 컸으며, 지금도 구성원과 시설물 사용 및 기타사항에 상당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차츰 홀로서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연구했던 기술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도전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학이란 공간에서 열정을 쏟고 싶었기에 동아리를 창립하게 되었다.

-동아리 명칭을 '사이버 관광정보'라 지은 이유와 사업계획에 대해 말한다면

### “철전팔기 자신있어요”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을 소재로 구체적 사업을 구상하고 싶었다. '사이버 관광정보'란 통신상에 관광에 관한 정보를 체계화 시키는 일로서 사이버 여행을 설립, 집안에서 나설때부터 돌아올때까지의 세세한 관광정보의 이론구축작업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1차적으로 통신망이나 출판물에 소개된 관광정보를 수집·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해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하이텔을 제외한 3개 통신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경주, 경북,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다. 한마디로 사용자 입장에서 여행정보를 이용할 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려는 것이 최종목표라 할 수있다.

- '사이버 관광정보'의 미래와 구성원들의 격오가 있다면

=7년 넘어져도 8년 일어난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다. '벤처'라는 말처럼 앞으로의 명확한 미래상을 제시할 순 없지만 '젊음'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잘해낼 자신도 있다.

황성규 기자

지난 23일 본사주최 제36회 전국고교생 문학백일장이 학림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젊은 만해를 꿈꾸는'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시부문

장원 : 김민음 (양천여자고등학교 · 1)  
우수 1석 : 엄경석 (안양예술고등학교 · 2)  
우수 2석 : 이소담 (중대부속고등학교 · 3)  
가작 1석 : 최혜미 (예문여자고등학교 · 2)  
가작 2석 : 노정환 (목포덕인고등학교 · 3)  
가작 3석 : 문시내 (광주여자고등학교 · 2)

### 소설부문

장원 : 이신애 (안양예술고등학교 · 3)  
우수 1석 : 이해진 (양재고등학교 · 3)  
우수 2석 : 김미선 (부산사직여자고등학교 · 3)  
가작 1석 : 박나리 (대덕고등학교 · 3)  
가작 2석 : 하희진 (광주대광여자고등학교 · 3)  
가작 3석 : 엄소영 (정원고등학교 · 3)

### 수필부문

장원 : 임여빈 (석관고등학교 · 3)  
우수 1석 : 김혜연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 3)  
우수 2석 : 김지영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 · 3)  
가작 1석 : 이주림 (광주여자고등학교 · 2)  
가작 2석 : 구선희 (동일여자고등학교 · 3)  
가작 3석 : 이승연 (안산강서고등학교 · 3)

### 심사위원

#### 시

신경림(시인 · 국어국문학부 석좌교수)  
홍신선(시인 · 국어국문학부 교수)  
최순열(시인 · 국어교육과 교수)

#### 소설

한용환(소설가 · 국어교육과 교수)  
김용철(소설가 · 법인사무처 사업부장)  
정채봉(동화작가 · 국어국문학부 겸임교수)

#### 수필

홍기삼(문학평론가 · 국어국문학부 교수)  
김선화(문학평론가 · 한국어문학부 교수)  
정태섭(본사주관 · 역사교육과 교수)

### 소설 장원

#### 벽

무능력자들 투성이지. 아무도 인정하려 들지 않을 뿐. 그러므로 우리는 무능력하고 무식한 족속.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진리이며 사실이다.

나는 모험을 하고 싶다. 아무도 눈치챌 수 없게, 나 혼자서 음모를 꾸민다는 것은 정말이지 스틸 낚치는 일이다. 이를 닦으면서, 겨울 속에 비쳐지는 거품을 잔뜩 문 내 얼굴을 보면서 그 계획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더욱 긴장되고 오래전에 퇴화한 내꼬리뼈가 불속 일어설 것만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든다. 하지만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비밀리에 떠나는 모험 여행을 해 본 사람은... 알 것이다.

흠뻑 젖은 채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13층을 누른 후 벽에 붙은 사자 거울에 얼굴을 밀착시켜본다. 비를 한참 맞고 온터라 눈 주위에는 시퍼런 그림자가 깔려 있었다.

“왔니? 대청소를 했더니 피곤해서 잠깐 누워있는 다는게 그게 말야...”

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언니는 찻잔때며 말했다. 아마도 나의 젖은 모습 때문일 것이다.

“화났니? 내가 잘못된 거지? 우산을 챙겨서 마중 나왔어야 하는데.”

“됐어. 나 샤워할거니까 더 자.”

나도 모르게 쌀쌀하게 튀어나왔다. 나는 내가 던진 말에 후회하고 있었지만 다시 정정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미안한 마음은 언니 앞에서 나를 머뭇거리게 만들었다.

“우산 가지고 다닐게. 장마철에 우산 안 가지고 간 내가 멍청한 거지.”

욕실 문 앞에서 젖은 옷을 벗으며 언니의 표정을 살피려 했지만, 언니는 거실 바닥에 납작 엎드려 내가 흘리고 들어온 빗물을 훔칠 뿐이었다. 항상 저렇게 주눅들어 있는 언니의 모습은 정말이지 내 속통을 조여온다. 나는 수도꼭지를 있는 힘껏 비틀었다. 따뜻한 물이 뿜이 밀려날 정도로 세차게 쏟아져 나왔다. 전신을 안마기가 훑고 간 것처럼 기분 좋은 떨림이 느껴졌다. 거실에 나왔을 때는 언니가 훑어주는 토란국 냄새가 구석구석을 파고 들고 있었다. 언니와 나는 한집에 살지만 얼굴 보는 시간은 세시간을 채 넘기지 못한다. 이른 아침에 나가 해가 떨어져서야 들어오면 나는 밥을 먹고는 곧 내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 언니의 대화상대는

말 못하는 선인장과 나쁜

엄마는 유독 저

투박한 선인장을 아꼈다.

언니의 유일한 대화상대는 저기 베란다에 놓여진

말 못하는 선인장과 오직 나 뿐이다. 선인장은 엄마가 키우던 것인데 엄마는 유독히 저 투박한 선인장을 아꼈다. 그런 생각을 하자, 나는 무슨 심보인지 그렇게 고소하고 입에 붙던 토란국이 갑자기 토란이 여물기 전 특유의 아린 맛만 느껴지는 것 같았다.

언니는 대인 공포증으로 중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다. 언니가 그렇게 된 것은 내가 열한 살 되던 해 엄마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했기 때문이다. 이유야 아빠와 맞지 않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복잡한 일들이 있었지만 나는 관심없다. 단지 내가 불쾌한 것은 내 하나 남은 혈육을 저런 바보로 만들어 놓은 것과 내 열한 살 나이를 난지도 같은 고약한 곳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그후로 언니는 모든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겁내했다. 하긴 자신을 낳아준 엄마도 자신을 버린 판에 누구 믿겠는가. 이제 언니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집안일과 자신의 문화생활인 라디오 방송듣기 뿐이다. 따지고 보면 언니는 엄마의 생활을 그대로 물려받은 셈이다. 이런걸 유전이라고 하는 걸까? 어쨌든 간에 언니와 쌍둥이인 나에게 이런 성격이 유전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날은 우리의 생일.

생일잔치를 벌이고,  
놀다 떠나는 아이들 배웅을  
마치고,

청소까지 끝낸후,  
뛰어내리셨다.  
청소를 마친 주부가 장이라도  
보러가듯이...

엄마가 세상을 등지고 떠난 날은 우리의 생일이었다. 언니와 내 친구들이 집으로 초대되어 왔고 여느 아이들처럼 즐거운 생일잔치를 벌였다. 엄마는 알뜰한 주부답게 꼼꼼히 생일상을 차려놓고 아이들이 놀다 떠나는 걸 배웅까지 해주었다. 그것뿐인가. 엄마는 평소때처럼 우리를 깨끗이 씻긴 후 텔레비전을 틀어주시고 청소를 하셨다. 그리고는 뛰어내리신 것이다. 청소를 마친 주부가 장이라도 보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이다.

“토란국 더 끓여줄까?”

언니의 목소리에 나는 정신을 차렸다 생각에 잠겨서도 밥은 먹고 있었는지 토란국과 밥이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나는 아무말 없이 그릇을 설거지통에 담가 놓고는 방으로 들어왔다.

언니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어린이처럼 입에 손가락을 넣고 빨기 시작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엄지손가락이 약간씩 짧았는데 언니는 오른손이 나는 왼손이 그랬다. 어릴 때는 모두들 쌍둥이라 그런 것까지 닮았으며 웃어댔다. 하지만 정작 우스운 것은 언니가 오른쪽 손가락을 빨면 빨수록 내 왼쪽 엄지손가락이 빠근한 아픔을 느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젖먹이가 엄마 젖을 빨아낼 때 엄마들이 느끼는 가슴앓이처럼 내 손가락에도 그런 것이



느껴졌다. 그럴때면 나는 본능적으로 내 왼쪽 엄지손가락을 꼭 감싸쥐었다. 마치 언니의 혀에서 내 손가락을 보호라도 하듯이 말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날씨는 뭐라도 빨아낼 것처럼 잔뜩 흐려있었고 언니는 화장 솥에 물을 끓여서 선인장 가시를 닦아주고 있었다. 선인장은 아끼 머리통 만한 크기에 녹색의 표피를 가지고 있었다. 가시는 손가락 두마디는 쪽이 됐고 진한 노란색을 띠었다. 언니는 그것을 하나씩 잡고는 어린이이 목욕시키듯이 하고 있는 것이다.

“날씨도 심란한데 뭐하는 거야?”  
“선인장도 몸이 끈적거릴 것 같아서. 사막 식물이란 습기랑은 친하지 않잖아 깨끗이 닦아서 해 뜨면 베란다에 내놓을 거야.”

언니는 평소답지 않게 신이 나서 말하고는 주방으로 들어와 며칠전 사다놓은 과자를 먹기 시작했다. 정말 어린이처럼 한 봉지 뜯어 맛을 본 후에 그것에 흥미를 잃으면 다른 봉지를 뜯어 맛을 보았다. 그렇게 조금 지나자 식탁위에는 과자판이 벌어진 채 “하나를 다 먹던지, 이게 뭐야. 지저분하게. 언니가 애야? 그렇게 뜯어 놓으면 눅눅해 진단 말야.”

내가 짜증스럽게 따져물자 언니는 주섬주섬 과자를 비닐팩에 담기 시작했다.

“제발 그렇게 주눅들어 하지좀 마. 그 모습이 나

를 얼마나 숨막히게 하는 지 알아? 언니만 보면 사방이 벽으로 막힌 곳에 갇힌 기분이야. 숨막혀.”

나는 드디어 터뜨리고 말았다. 11년간 참아왔던 말이었다. 하지만 언니는 묵묵히 과자만 담을 뿐이었다. 어떻게 보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언니는 대답이 없었다.

내가 소리를 지르자 언니는

까맣고 깊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 눈은 정말이지 엄마의 눈과 흡사했다.

“내일은 우리의 생일이야.

장보러 같이 갈래?”

“말좀해봐. 사람이 말을 했으면 대꾸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내가 다시 한 번 소리 지르자 언니는 그 까맣고 깊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 눈은 정말이지 엄마의 눈과 흡사했다.

“내일 우리 생일이야. 지금 장보러 갈건데 같이 갈래?”

소설 심사평

전반적으로 힘있고 구성력있는 사람들이  
입상되었다. 3시간이라고는 하지만  
한편의 소설을 구상해서 마무리 짓는 것은  
기성작가들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최우수작으로 뽑힌 안양예고의  
이신애는 '벽'을 선인장과 언니로 대입해서  
섬뜩할 정도로 벗어났다.  
우수 1석으로 한등 내려앉기는 했지만 양재고의  
이혜진 작품 '그 여름'도 잘 벗어낸 소설로  
인정된다.  
특히 소화력이 우수했는데 인용된 시가 어색했다는

점을 밝힌다.  
우수 2석의 부산 사직고 김미선의 '그 여름'은  
문장의 맛을 한껏 살려낸 묘미에 경탄하였다.  
그러나 구성력이 미흡했다.  
가작의 대덕여고 박나리의 작품 '벽'과  
광주대광여고 하희진의 '그 여름',  
정일고 엄소영의 '벽'도 합당한 소설이었다.

이외에도 선에 들수 있는 작품들이  
많았다는 것은 종래의 전통과 역사에 따른  
응분의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입상지 모두의 대성을 기원한다.

한 용 환·김 용 철·정 채 봉



언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일까?  
나는 짜증을 참느라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고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  
당기자 두두룩 거리는 빗소리가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었다.  
나는 꿈을 꾸다. 엄마와 언니가 선인장을 안은채  
나와, 나를 어딘가에 가둬 버렸다. 벗어날 수 없는  
어두운 곳. 엄마는 꿈속에서조차 나를 버렸다.  
하루사이 비는 말끔히 개었다. 한창동안 비가 온  
터라 공기까지 깨끗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언니는  
베란다에서 햇빛을 받으며 음식재료를 다듬고 있었  
다.

"식구도 둘 뿐인데, 생일상은 무슨..."  
음식을 차려놓아도 먹을 사람이 없다는 걸 언니  
는 알고 있다. 그런데도 웃음까지 머금으며 아이들  
소꿉장난하듯 요리를 하는 것이다.  
"빨리 옮겨지? 네가 좋아하는 새우튀김도 할거  
야."  
언니는 내가 학교 가는걸 배웅하면서도 연신 웃  
음을 지었다.  
"늦을지도 몰라. 그리고 베란다 참 좀 열어야 환기  
좀 되게."  
언니는 내가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것을 보고서야  
안으로 들어갔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엘리베이

터를 타면 갑갑하고 막막하게 언니와 함께 있는 기  
분이 들었다.  
강의가 끝나고도 나는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캠퍼스를 돌아다녔다. 공상맞게 앉아 나를 기  
다릴 언니를 생각하니 더더욱 들어가기 싫었다.  
이곳저곳을 배회하다가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을  
때였다. 내 엄지 손가락이 깊숙이 아주 깊숙이 무언  
가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굉장한 통증이  
었다. 나는 늘 그랬던 것처럼 손가락을 꼭꼭 눌러가  
며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통증은 좀처럼 가시지 않  
는다.

현관을 열었을 때 거실은 어두웠다.  
거실에는 생일상이 차려진 채였고  
이 분위기는, 이 공간의 흐름은  
11년전 그날과 너무 같았다.  
언니는 베란다에서 엄지손가락을  
꼭 문채 웅크리고 있었다.

아파트에 도착해서 13층까지 올라가는 때는 얼마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왜 그렇게 불안하고 길게  
느껴지는 걸까? 이 엘리베이터 속에 영원히 갇혀버  
릴 것처럼 말이다. 현관을 열었을 때 거실은 어두  
웠다. 나는 벽을 더듬어 전등을 켰다. 거실에는 생  
일상이 차려진채였고 나는 갑자기 시간이 거꾸로  
흐른 듯한 느낌이었다. 이분위기는, 이 공간의 흐름  
은 11년전 그날과 너무 같았다. 베란다 문도 열린  
채였다. 문을 닫으려고 베란다 쪽으로 걸어가는데,  
그곳에는 언니가 엄지손가락을 꼭 문 채 웅크리고  
있었다.

"언니 고개좀 들어봐. 내가 항상 말했잖아. 손가  
락 좀 문고 있지 말라고."  
나는 내 엄지손가락을 주무르며 조심스럽게 언니  
를 일으키려다가 손을 놓고 말았다. 언니의 얼굴은  
찡그고 부분부분은 무언가에 타격을 받은 듯 짓눌  
려져 있었다.  
"언니, 얼굴이... 얼굴이..."  
나는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언니의 얼굴도 얼굴  
이지만 품에는 그 굵고 투박한 가시의 선인장이 분  
래의 모습을 잃은채 안겨 있었다. 화분도 없었고 선  
인장의 뒷부분만 언니의 품에 가시를 박으며 안겨  
있었다. 이미 언니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다. 언니는  
멍하니 고개를 들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과일을 사러 나갔는데...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말  
이야 베란다 난간에 엄마가 서 있다가 뛰어내렸어.  
그래서 발로려고 뛰어갔어. 질했지? 난 이렇게 엄마  
를 받아냈어."

언니는 거실 바닥에 해가 뜰때까지 그 자리에서  
꼭꼭도 하지 않았다. 나중에는 앰블런스를 불러 병  
원으로 보냈지만 언니는 병원에 도착하는 내내 허  
공에다 헛손질을 했다. 부언가를 받아내길라도  
하듯이.

얼굴의 상처는  
언니의 마음 속 상처 만큼이나  
큰 흉터로 남을 것이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경비아저씨는 말을 건넸다.  
"아까씨 쌍둥이었어?  
어제 베란다 난간에 둔  
선인장이 떨어졌나봐.  
주변사람은 모두 피했는데  
그 아까씨가 선인장을 받으려고  
뛰어오지 뭐야?"

병원에 도착해서 언니의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  
다. 하지만 하나같이 결과가 좋지 않아 장기간 입원  
하라는 의사의 지시가 내려왔을 뿐이었다. 언니는  
오래 정신질환과 얼굴에 큰 상처까지 입어 여러 가  
지 문제가 겹쳐진 상태였다. 나는 안경대를 맞고 감  
들어 있는 언니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얼굴의  
상처는 언니의 마음 속 상처만큼이나 큰 흉터로 남

을 것이다. 나는 언니의 소지품과 속옷을 챙길 겸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화분 장사가 트럭에 식물을  
가득 싣고 와 팔고 있었다. 나는 언니가 정신이 들  
면 선인장을 찾을 것 같아 저번 것 보다 작고 붉은,  
꽃까지 피어있는 예쁜 것으로 하나 샀다. 엘리베이  
터에 들어서려하는데 경비아저씨가 나를 뺨히 쳐다  
보더니 말을 건넸다.

"아까씨, 쌍둥이었어? 난 까말게 몰랐네 그려. 어  
제, 해가 좋더니 선인장을 베란다 난간에 놓았었  
나봐. 그런데 그게 떨어지더라구. 주변에 있는 사람  
은 모두 피했는데 말리 있던 그 아까씨는 이상하게  
도 들고 있던 과일까지 챙겨온 채 뛰어오더니 끝째  
그 선인장을 받으려하지 뭐야?"

나는 저번 비오는 날 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해가 뜨면 내놓겠다고 선인장을 깨끗이 닦았던 그  
상황이 이렇게 연관되자 선인장을 들고 있는 손이  
후들거림을 느꼈다.  
거실에는 어제의 생일상이 그대로 차려져 있었  
다. 나는 선인장을 내려놓고 언니의 소지품을 챙기  
기 시작했다. 언니의 속옷과 책 몇 권을 챙기다가  
언니의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다.  
-나에게는 비밀이 있다. 너만의 비밀. 11년전 엄  
마가 뛰어내리던 날부터 엄마는 선인장 속으로 들  
어와 종일토록 내 이야기를 들려준다. 엄마는 속은  
여러지만 겉은 가시로 무장한 선인장이 되어야 한  
다고 하겠다. 언젠간 나도 선인장속으로 들어갈 것  
이다.

엄마가 선인장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정  
말 언니는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언니가 미쳤던가  
아니면 내가 미쳐가고 있는 중일 것일까. 나는 거실  
로 나가 베란다 앞에 웅크리고 앉았다. 해가 지고  
서늘한 바람이 얇은 블라우스를 파고들었지만 나는  
개이지 않는다.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고 낮까지 육  
신거뿔던 엄지손가락이 아프지 않은 게 기분이 좋  
았다.

엄지손가락이 아프지 않다는 건 내가 언니에게서  
해방되었다는 걸까? 아니면 나도 언니처럼 되어 가  
는 것일까. 나는 내 안에 있는 선인장을 내려다보았  
다. 무엇에서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저리도 굵은  
가시를 뽐냈을까.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자기 보호  
방법을 터득한 것일까? 그렇다면 난 왜 시간이 흘  
러도 터득은커녕 점점 더 벗어날 수 없는 곳으로  
감히게 되는 건가?

베란다 창에 달빛이 비추지기 시작했다 나는 선  
인장에서 눈을 거두고 달빛을 보기 위해 고개를 들  
었다. 사방이 막힌 어두운 곳에서 한줄기 빛을 잡는  
것처럼. 하지만 내 눈 속으로 파고 든 것은 달빛이  
아니라 베란다 창에 비추지는 낮익은 모습이었다.

선인장 앞에 웅크리고  
앉아 하루종일 엄지손가  
락을 빨고 있는 주눅 든  
아이 하나!  
그것은 벗어날 수 없  
는 벽에 갇혀버린 또다  
른 나였다.



안양예고  
3학년  
이 신 애

고교생백일장 참가자의  
남기고 싶은 한마디!

△글쓰는 게 가장 쉬웠어요!  
△슈퍼스타 특 등대 왔다! 바보야 부럽잖아? 메  
롱98. 5. 23 대 안산강서고등학교 제1일 마니  
왔다.  
△사-김소울, 수필-현진건, 소설-김동인 그리  
고 내가 있다.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핫하!  
저를 잊으셨군요. -> 너 혹시 '원태연' 이지  
△어라 목포 덕일고라 왔구나 왔어. 참말루  
반갑다. 나야나 좋은 결과 있었을 한다. 해인  
여고두...  
△오늘 오신 여러분들, 상에 연연하지 마시다.  
장원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장원은 나의  
것! 우하하!  
△이야 동국대가 나를 부르누나 근대 어찌지?  
난 이과인데... 문과갈 걸 허임...  
△두 마디는 안되나요?  
△"대 덕성여고"에서 온... 98. 5. 23 2학년 7  
반 유서은 선생님! -> 진아언니! 감사합니다!  
△나...나리... 강타 올빠 만나러 왔는데... 나  
합격하면 이 소식을 잘 먼저 우리 강타 오빠  
에게... 사랑해요! 동국대! 나 꼭온다!!  
△분홍색 옷 입은 언니 예뻐요. 성모요고 파  
이팅 동국대 꼭 온다! -이쁜이-  
△-그 사람이 궁금하다.- 이X해양의 충격실화  
내가 글을 다 쓴 후 나가서 식권을 받고 나서  
언니에게 가려고 하는데 '식당이나 알고 가는  
거예요?' -파용!- 과연 누굴까 이말 한 사람.  
△위아래 검은 정장 입은 오빠 캠퍼스 벗었어  
요. 사립일까?  
△광주 대광여고에서 하·희·진 올랐잖. 문  
단에서 불시당~ P.S 강타야 토니야 어딴누?  
△나 안 뽑으면 평생 후회한다.  
△왕신여고 석정원. 동국대 구경했다. 학교 선  
생님들과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싶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김말을이라는 동생 만나서 행운  
이다. 좋은 경험했다.  
△상 사 주면 좋겠지만 왠지 자신이 없어지네  
요. 심사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하시길. 동국대  
여 영원하라!  
△언니 학교 구경 정말로 잘했어요. 사랑해요.  
-강서인-  
△"사랑노루가 제 향기에 미쳐 달아납니다.  
난 알고 싶지 않은 것만 알고 찾을 수 없는  
것만 찾았습니다." -> 민화책에서 본 건데 기  
억에 많이 남네요. bye.  
△ 긴 기다림 후 더 긴 여운...  
△ 동국대 99학번 신건욱 왔다 간다!  
△ 왔노라! 글 썼노라! 상 받았노라!  
△ 문영여고 권은영 다녀감.  
△ 나도 '동대신문'에 실려줘요.  
△ 여기 89년 졸업생 딸 왔다따. 안XX

- 낯익은 위아어 -●●●
- ^^: 당황한 얼굴
- : 의심하는 얼굴
- : 놀란 얼굴
- T\_T: 우는 얼굴
- ..: 황홀한 얼굴
- .-: 무표정
- ><: 평그린 얼굴
- ^: 미소
- ^ ^: 더 큰 미소
- ^o^: 웃는 얼굴
- ^o^: 더 크게 웃는 얼굴
- ==: 졸린 얼굴
- .-: 생각중
- : 영두 눈
- : 인경꾼 얼굴

오늘 좋은거 하나 발견했쥬 ~

학교에 가려고 지하철을 기다리는데(←범생이임) 가판대쪽으로 자꾸 시선이 끌리는고야.

두리번~두리번~ ○.○ 뒤를 샅샅이 돌아보니, 그건 동/아/일/보/때문이었어!

증말 달라진고 있쥬? ○.○ 가로쓰기에, 굿모닝 미즈앤미스터, 굿모닝 이코노미, 굿모닝 스포츠...

무지 x2 볼 거 많구. 아주~우 근사하구... (핵학, 정말 많쥬?) 근데, 왜 대한민국 도날드님, 카툰클럽을  
킬킬대며 보다가 네 생각이 났을까? 감동했쥬? T\_T 너 요즘 뜨는 만화에 관심 많자노?

야, 세상 달라졌드라~ 동아일보 안보문 - 안보문 - 콜콜콜... 너 왕따돼도 나 책임 안진다. ^o^

음, 동아일보 얘기하다가 수업시간 늦쥬다. ><

그럼 이따부아아아~ 쿡쿡... ^ \_\_\_\_\_ ^ 빠2~

- 읽기편한 가로쓰기와 젊은 감각의 3색선 신문
- 다양한 정보 독자의 욕구에 바로 맞추는신문
- 복잡한 사회현상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신문
- 독자들께 항상 대화하는 채널을 지닌 신문

동아일보는 정보화 시대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편하게 전해드립니다.  
정보를 길러 지혜를  
드립니다.

정보민주주의 -  
**東亞日報**

**시 심사평**

시는 무엇보다도 세계를 읽어내는 눈이 섬세해야 하는 만큼 삶에 대한 다사롭고 성실하고 진지한 성찰의 자세에서 남다른 감각과 정서를 환기해

내어야 한다. 그리곤 그것을 가장 효과적인 언어로 형상화하는 일이다. 예전과 달리, 각박한 세태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대체로 자잘한 일상적 삶의 삽화를 시의 밑그림으로 삼고 있었다. 물론 청소년다운 참신성이나 지향적 이상형이나 현실인식의 준엄성이 아쉬운 바가 있으나,

욕심부리지 않고 차분하게 자기 주변의 삶에 기발한 발상과 차분한 전개, 소박한 언어 등이 오히려 순조로운 동감을 자아내게 하는 바가 있었다. 김민음(양천여고·1)의 '강물이 흐르듯이'는 그 발상과 언어적 감각이 탁월하였다. 그러면서도 따스한 마음과 정감이 가득 스며 있음이 돋보여

장원으로 올랐다. 엄경석(안양예고·2)의 '탈'도 대상을 바로 아버지로 환치해내는 소박하고 절실한 발상과 투명한 전개가 마음을 움직였고, 이소담(중대부고·3)의 '탈'은 그나마 인간의 삶의 이야기를 형상화하는 힘이 돋보였다. 그리하여 각각 우수작으로 추렸다.

신 경 립·홍 신 선·최 순 열

**고교생 백일장 참가자의 남기고 싶은 한마디 2**

△양천여고 김민음... 와서 정말 떨리고 참가했다는 게 감격스러웠다. 그리고 어떤 좋은 언니(석정연 언니)도 알게 되어 정말 기쁘고 즐거웠다!  
 △떨고던 부산에서 왔는데 그것도 새마을로... 왕복이면 돈이? 엄마도 왔는데... 책 읽어 임... 남희(성모여고)-  
 △나: 엄마! 나 장원 먹었어  
 엄마: 대한 독립(?) 만세!  
 △중대부고여, 영원하라!  
 △풍대 캠퍼스가 참 좋았습니다. 나중에 오고 싶어요. 꼭 다시 한번. 비록 끝은 잘 못 썼지만. -충주여고 E.S-  
 △열렬하여 영원하라.  
 △울산 제일여고 고운이 왔다감~ 근데 강타오빠 안보여.  
 △건물이 너무 복잡해요. 같은 길을 세바퀴나 돌았어 임~  
 △친구들이 강타, 토니 납치 실패!  
 △밥 많이 주세요!(배고파임) 평소 메뉴는 이게 아니라던데.  
 △저 안 뽑아주면 대학 못가요.  
 △꼭! 합격!  
 △대 서산여고 '아희' 영원하리~!  
 △철주형아 얼굴보기 되게 힘들군요. - 고창에서온 춘남 -  
 △강원고등학교 여울25기 왔다간다.  
 △춘여고에서 최후에 왔다갑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그치만 사랑 자~알 사먹을게요.  
 △글쓰는 것은 어려워?? 그래도 나는 쓴다. 왜냐구. 그냥(?)  
 △권선고에서漲이 다녀가요! 오늘 모두 기쁜 맘으로 돌아갈수있길...  
 △대 이천 양정 여고에서 내가 왔다 간다. 그러나 다시온다. - 하수진 -  
 △빨리 쓰라고 재촉한 아저씨 미워임-. 애들이 수정이 동국대 입성이다. 글구 HOT. 에릭 못봤다.  
 △엄경석 백일장 왔다가 물 먹고 간다.  
 △대 강원고 여울 26기 유종이 다녀가다.  
 △야. 소문 들었니? 김해 중앙여고 문예반이 왔다. 다른 애들 불쌍해서 어찌니?  
 △잘 생각하고 멋진 탁창식 선생님 계신곳. 강원도 여성 교육의 1번지 대 춘여고 이지혜 다녀가다.  
 △열심히 하고 갑니다. "하지만 다음엔 야외에서 썼으면 좋겠어요" - Bye  
 △대덕성 지현, 아름 왔다감.  
 △그 여름에 벽만 붉다 가요.  
 △힘들었지만 좋은 경험이었습니.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시 장원**

**강물이 흐르듯이**

투명한 아침 햇살 위로 출발하던 사람들의 건강한 노동,  
 종중이 되곤 승강장마다 들어차더니  
 고척시장에서 본 햇살잉어처럼 순금빛 허가 지고 있다.  
 노오랑게 아문 달이 어두운 창문을 수놓는 동안  
 일을 마친 아버지는 간단한 품삯을 받아와 등등 코를 고신다.  
 깊은 어둠이 희끄무레 신작로를 트면  
 엄마는 땀구멍물 뽕코대를 설거지하시네.

한 샛씩 쌓이는 일과(日課)마다 잔잔한 기쁨 슬픔,  
 그 위로 식기와 수저가 달그락, 호미날처럼 은은히 빛난다.  
 저녁 노을이 마음껏 날개를 편 채 어둠으로 향할 때,  
 하루 외출의 끝에서 묵막하 쪼옥 마시는 생수물  
 나무들은 한밤내 물레 물을 먹는다.  
 날이 밝으면 양귀 손나무에 문은 새벽빛을 되찾아야지,  
 한창 늦잠에 빠진 동생 머리맡에 기쁨 한 포기 파내야지.

우린 새벽길을 재촉할 아빠의 신발을 털고 닦는다.  
 땀에 젖은 작은 앞터에서  
 나와 동생이 눈에 찬찬히 '작신작신 뺨한다'는 아빠...  
 뒤에서 방긋 웃는 잔소리꾼 우리 엄마  
 화다닥, 보름이와 나는 도시락과 신발주머니 채긴다.  
 맑은 아침빛물로 씻겨지는 유리창의 햇빛 몇 줄기  
 여름 빛소리가 강물에 시원히 흰 거품을 일게 하면  
 하루하루 달라지는 물빛으로 그 강은 쉬임없이 흐른다.



양천여고  
1학년  
김민음

**우수석**

**탈**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다니는 아버지는  
 언제나 자신 없는 모습이다  
 하지만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이면  
 아버지는 자신감이 넘친다  
 엄마한테 큰 소리도 치고  
 나한테는 뭐든지  
 다 사줄테니 조금만 기다리라 한다  
 이때 아버지 얼굴은  
 웃는 얼굴이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다  
 마치 기분을 알 수 없는  
 탈 처럼 아버지 기분을 알 수 없다  
 하지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탈을 닮은  
 아버지 얼굴이 좋다



안양예고  
2학년  
엄경석

**우수2석**

**탈**

할아버지가 주신 하회탈이  
 오늘도 웃는다.  
 어디에 그 많은 웃음이 있어  
 날마다 웃으시는가.  
 각도를 달리해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들겨 보아도  
 허허 웃음짓는  
 탈은 언제나  
 내 마음을 환하게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약자하게  
 거리를 매우는 도시에서는  
 저 하회탈을 볼 수 없다.  
 몇 번 머리를 흔들고는  
 하회를 벗삼아  
 스스로 저물다가 저물다가  
 고향으로 가는 노을을 보면  
 할아버지가 생각난다.  
 도시로 자식들을 모두들 떠나보내고  
 혼자 논밭을 지키고 계실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그 무거운 육신에  
 탈의 본 모습이 아닐까.  
 가늘길 없는 슬픔으로  
 오늘도 하회탈을 올려다 보고  
 또 올려다 본다.



중대부고  
3학년  
이소담

수필은 생각하고 느낀 그대로 쓰는 글이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읽는 사람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자칫 신변잡기에 그치고 만다. 신변잡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글 쓰는 사람의 체험이 보다 생생하게 살아날 수 있게 정확한 문장, 보다 깊은 사색이 그 속에 담겨져야 한다. 수필이 소설과 다른 것은 꾸며내지 않고 진솔하게 자신의 생각을 담아내는 데 있다.

많은 학생들이 소설의 구조인 이야기에 기대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려고 했다. 다소 작위적인 느낌을 글 속에서 읽게 되어 보다 덜 감동적이었던 것은 수필의 특성을 소설과 혼동한데서 연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장원을 한 임여빈(석관고·3)의 글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체험을 다른 학생들 보다는 더 공감할 수 있게 진솔하고 정확한 문장으로 표현해 놓고 있었다. 이 작품을 장원으로 뽑는데 심사위원들은 쉽게 합의하였다.

홍기삼·김선학·정태성

# 장애인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는 거울을 들여다 보는 것이다. 거울을 들여다 본다. 그 중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곳을 찾아낸다. 비스듬히 서서 양옆으로 눈알을 굴린다. 왼쪽 눈동자가 거울을 쳐다보지 않은 채 천장으로 향해 있다. 오른쪽 눈을 가린다. 그래서야 제자리를 찾는다. 안도의 한숨을 내린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 마다 난 다시금 내가 사이라는 사실을 이런식으로 인식하게 된다. 어렸을 때부터 난 '사팔뜨기'라는 별명을 달고 살았다. 그것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 언제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가, "눈이 아예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너는 얼마나 행복하냐?" 하시며 위로하려 하시지만 그말을 듣고 나면 웬지 모르게 더 서러워 지곤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내 모습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어머니의 그 말들을 어느틈엔가 수긍하고 있었다. 시각 장애인의 고통이 나에게만은 위료가 되는 사실의 나를 죄책감에 빠져들게 했다. 하지만 이 것은 내가 글을 끄적일 때나 거울 속의 나를 보며 위로할 때나 느껴지는 감정이었다. 학교갈 차비를 하면서 큰 창문 앞을 서성거린다. 나의 가장 친한 소꿉친구에 집을 내려다 본다. 혹시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철강, 대문소리가 난다. 문을 열고 누군가 나온다. 한쪽 발이 보인다. 검을 구두를 신었다. 이쯤되면 나는 실망을 한다. 친구의 아버지인 것이다. 그냥 얼굴을 돌리고 싶다. 하지만 쉽게 돌아가지 않는다. 손이 나오고 몸과 얼굴이 등장한다. 가방을 든 채, 한쪽 발을 떼인다. 다른 발을 옮기는 동안 몸이 균형을 잃고 뒤뚱거린다. 가방을 들지 않은 팔이 덜렁거린다. 아버지는 소아마비다. 그게 어떤 병인지 난 자세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다리를 절며 아침마다 그 문을 나오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잠시나마 침묵을 지키면서 그 만성인 된 고통을 헤아려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 자신에게 나와 아버지의 모습을 비교하도록 고문을 하는 것이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 대해 푸념만하는 나와 다리를 절면서도 당당하게 걸어 가는 아버지를... 비교될 만한 장애가 아니라는 걸 잘 알기에 창문을 내려다 보니 아버지가 출근하시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동정심 때문에 슬퍼진다. 그러나 친구네 집에 가서 아버지를 볼 때나 길에서 인사를 하면 항상 웃으시며,

"오냐"하고 응수해 주시는 것을 볼 때 나는 아버지에게서 장애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는 없었다. 이렇게 창문으로 아버지를 보고 나서 학교에 가면 괜히 우울한 척을 하곤 했다. 그러면서 혼자 이 세상에는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나 자신이 나를 인정하지 못했을 때 나는 장애인이었다.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원망했고 나 혼자만 불행한 듯 행동했었다. 어떤 위로의 소리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차츰 나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마음이 편해진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대해 생각해 보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참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저마다 고통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 되버렸다. 그러나 이런 나의 생각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 그걸 알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언젠가 아이들의 놀림을 받고 와서 "엄마는 날 절대로 이해 못해!"하며 울음섞인 소리를 내뿜었다. 지금 생각하니 나도 마찬가지다.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다고 해도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석관고 3학년 임여빈



# 아빠! 웃으세요

나는 문화초등학교 1학년 7반 71번이었다. 여학생은 50번부터 번호를 갖게 되는데 1살 어린 나는 생일이 늦어서 혹은 키가 작아서 늘 학급의 마지막 번호였다. 별명 역시 이 번호와 무관하지 않았다. '앞니 없는 꼬마'에서 '이상한 이빨의 꼬마'였다. 앞니가 빠지더니 6개월이 지나도 그러니까 2학기가 되어도 나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었다. 늘 말을 하면 발음이 새고 친구 얼굴에 침 뿌리는게 특징이었다. 그러더니 이빨이 나왔다. 앞니 두놈이 서로 싸웠는지 딱 벌어져 자리를 잡은 것이다. '나아들면 붙는다'고 어른들은 말씀하셨지만, 고3이 된 지금 까지도 앞니 두놈은 사이가 나쁘다. 내 치아의 또 다른 개성은 앞니를 기준으로 좌우 3번째 자리에 위치한 2개의 덧니이다. 1학년 7반의 소풍 단체사진에서 진짜 함박만하게 웃고있는 나는 덜 자란, 사이나발, 안니와 두 개의 덧니가 빠죽이 얼굴을 내보여 57명중 가장 눈에 띈다. 이런 내 사진을 보더니 '우리 아빠는 완전 '드라큘라'라며 엄청 웃으셨다. 나를 높게하여 '아'하고 입을 벌려보라고 했다. '아'했더니 완전히 뒤로 나뉘면서 '비포장 도로'라고 내 이빨을 보고 웃었다. '우하하하 하하' 이렇게 5분이 넘게 웃더니 나중에는 심명나게 눈물까지 흘리셨다. 이것은 내 기억중에 아빠의 가장 크고 활짝 핀 5월의 장미 같은 웃음이었다. 1학년 7반의 71번 혜연이는 공부 하나는 아무것도. 내 자랑 같지만 구구단, 덧셈, 뺄셈, 나보다 키 크고 가지런한 옥수수 이빨을 가진 친구들도 공부 는 나를 못따라왔다. 하루는 선생님께서 욕심많은 염소가 입에 고기를 물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가 물에 비친 자신의 고기를 썰내다 고기를 잃게 되었다는 동화를 읽어 주시고는 외나무 다리에 서 있는 염소그리기를 미술숙제로 내주셨다. 이것은 아빠와 함께 그리기였기 때문에 아빠가 그림을 그리고 아이는 색을 곱게 칠해오는 것이었다. 나는 아빠와 함께 많은 종이를 버리고 찢으며 깊은 정성을 들였다. 마침내 우리는 과학책에 나오는 염소의 모습과 달력에 나온 농촌풍경의 그림을 바탕으로 기찬 작품을 만들었다. "비포장! 다됐다." "흐흐 아빠 얼굴에 연필 묻었어." "너무 인척아 얼굴이 노란색이다." 쓱쓱 코에 묻은 땀을 씻고 크레파스로 범벅이 된 내 손과 연필이 가득 묻은 아빠손을 한 세숫대야에 넣고 우리는 비누가 빨갛게 까맣게 노랗게 물드는 걸 보고 좋아라 웃었다. 다음 날 역시 내 것이 1등이라고 생각하던 나는 내 그림을 읽어드시는 선생님을 솟아오른 죽순처럼 고개를 치켜들고 올려 보았다.

"혜연아, 네 염소는 다리가 세개뿐이다." 흑-탱탱 훌쩍 코를 들어마시곤 나는 아빠가 올 때까지 하루 종일 울었다. "염소 다리가 세개야? 아빠 세 개야?" 부끄러워 누런 코가 들쭉였다. 밤늦게 들어오신 아빠에게는 그림을 던지며 울었다. 아빠는 내 말을 듣고 그림을 보신 후에 얼굴이 익으시더니 입술을 깨무시며 말씀하셨다. "혜연아, 이걸 걸어가는 염소라 다리가 한 개 가려진 거야. 미안하다." 이러시면서 그해 가을 맛보았던 붉게 쪽 벌어진 시름한 설탕처럼 웃으셨다. 그것은 10월의 석류처럼 쫄쫄함이 가득했다. 웃음이 사그라지는데, 시간은 흘렀다. 고3이 된 나에게 아빠는 더 이상 웃지 않으셨다. 그동안 사업이 안되서 많은 일이 일어났고 겨우 추스렸을 때 아빠는 만성염부염증이라는 병을 얻으셨다. 아빠는 예전같지 않으셨고 흰머리만 가득해졌다. 나는 사소한 일에도 아빠의 광광하게 맞서야 직성이 풀렸고 당달아 두 살 터울의 남동생까지 아빠를 아빠라 부르지 않았다. 중학교때부터 1등과 떨어진 나는 글쓰기라는 곳에 재미를 붙였고 모아지는 상상들은 맛이 참 고소했다. 어느날 집에 와 보니 30개 남짓한 내 상상들은 액자에 표주박이 거실 한 벽면에 걸려 있었다. 아빠가 하신 일이란 걸 아는 나는 칭찬하게 무슨 짓이나며 다 걸어버렸다. 하지만 그날 밤 내가 아무렇게나 쾅개친 상상들을 5개씩 나누어 보자기에 싸시며 없는 먼지를 흠치시던 아빠의 오진 웃음을 보게 되었다. 1월에 쌓인 눈과 얼음을 헤치고 나온 새싹처럼 파랗게 웃으셨다. 겨울의 기다림이 지루했던 것처럼 그 1월의 웃음은 따뜻한 감촉이었다. 내년이면 대학생이라고, 주민등록증이 나왔다고 좋아하시던 아빠. 지금까지는 아빠의 무릎잡이 우리가족과 아빠의 웃음을 잃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다. 웃음은 내가 이상한 이빨을 내보이며 웃는 것에서부터 갖 고등학생이 된 동생이 '아부지'하고 불러드리는 것에서부터 찾을 수 있었다. 파랑새를 찾아 먼 여행을 갔다가 마침내 집에서 파랑새를 찾은 주인공의 웃음을 배우게 된 것이다. 이전 아빠를 아빠의 흰머리만큼이나 많이 웃겨드려야 했다. 한번 웃을 때마다 흰머리가 까맣게 되도록 아주 힘차게 푸지게 웃겨드릴 것이다. 아빠 웃으세요!

광주동신여고 3학년 김혜연



민족의 미래를 여는 통일문화' 시리즈 글 쓰는 순서

1. 통일운동에 대해
2. 민족자주문화와 통일문화의 연관
3. 대학문화를 통일문화로 바꾸기

해방 후 한국학생운동은 4·19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일어났으며 민족들의 들끓던 통일열기 속에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로 요약되는 '6·3 남북청년학생회담'을 추진하며 전격적인 통일운동을 펼쳤다.

당시 '대학문화'는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지 못했다. 6·70년대는 '탈출부흥운동' 등을 통해 '민족문화'로 그 관심을 표명하며 '대학문화'를 건설해 나갔다. 소위 '저항문화'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일궈냈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학문화'의 양상은 상당히 달라지게 되었다. 수많은 담론과 이념의 문제, 80년 5·18 광주민중항쟁을 계기로 군부독재의 폭력적인 억압으로 인해 사회 전반의 거센 저항 속에서 '대학문화'의 화두는 새로운 싹을 틔우게 되었다.

이는 80년대말부터 90년대 초까지 전대협으로 통칭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학문화'의 창출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80년대 초부터 함락적이고 소비적인 '축제'를 공동체적 성격을 띠는 '대동제'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대학문화'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이 전대협은 통일운동을 선도적으로 펼쳐며 '대학문화'의 한 부분으로 '통일문화'를 만들어 냈다.

올해는 '민간통일운동'을 펼쳐온지 10여 년이 되는 해다. 10여 년 전인 88년 서

# 대학문화가 나아갈 길

## “저항을 통일로...다시 민족문화로”

울대 총학생회장 임후보한 김중기씨는 '남북청년학생회담'을 공약으로 내걸고 '통일운동'을 청년학생운동이 본격화 할 것을 제기했다.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 안은 전대협은 88년에 "남북청년학생회담 성사투쟁"을 벌여나갔으며 연세대에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수많은 학우들은 통일운동의 열기를 더욱 상승시켰다. 당시 전국의 '남북청년학생회담 성사투쟁'을 이끌던 각 지역 대표는 통일을 외치며 연세대 정문을 뚫고 나가기 위해 광복전으로 서로를 묶고 필사의 돌진투쟁을 벌이며 연행되었고 그 보다 많은 수만의 학우들은 서울의 홍재동 거리에서 "통일"을 외치며 지도부의 헌신적인 투쟁에 화답했다.

그 무렵부터 대학문화의 화두인 '민족문화'와 더불어 '통일문화'라는 새로운 화두가 제기되었다. 당시 '남북청년학생회담 성사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대협은 각 대학에서 자생적으로 있었던 '노래가사 바패 부르기'나 '민중가요 경연대회' 등의 행사를 검토하여 새로운 형태의 대학문화의 장을 만들고자 '전국대학생 통일노래 한마당'(이하 '통노한')을 만들기도 했다.

'통노한'이 '대학문화'를 질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겠으나 개인 음악활동을 하는 선배들과 자연스럽게 '대학문화'와 '통일문화' 그리고



지난 5월 북한을 방문한 리틀엔젤스 단원들이 북한 친구들을 만나는 모습.

'노래문화'를 함께 고민하는 과정을 만들어 대학문화의 창조적 성과들이 사회전체로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한때 '통노한' 3등 수상곡이 '대학가요제' 3등을 동시에 탈취하는 등 그 위력은 지금 실감할 수 없을 정도였으니.

그렇다면 이러한 대학문화와 통일문화의 내적 연관성은 무엇이며 상호관계는 무엇일까?

'대학문화'는 대학이라는 공간과 대학생이라는 신분적 특성이 빚어내는 실험적이며 진보적인 그리고 다양성을 띤 공동체 문화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시대적인 진리와 그 실천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청년학생은 시대정신을 '대학문화'에 담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운동을 선도적으로 펼쳐온 청년학생에게 '통일문화'는 통일을 향한 청년정신의 구체적 표현이고 자기 문화인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통일문화'는 다가올 통일에 대비한 상호 이해와 문화·정서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때이다.

통일은 우리 국민들에게 단계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문화·정서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한민족의 정체성 문제와 상호간의 문화·정서적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융합하는 과정에서 제3의 새로운 형태의 '민족문화'를 건설하는 힘이 될 것이다.

문화예술청년공동체 사무국장 이승동

리틀엔젤스 인터뷰

### “어른들만 통일하면 돼요”

지난 5월 2일부터 12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3차례 공연을 갖은 리틀엔젤스 단원들은 “외국에 가면 어색하고 말도 안통해서 불편한 점도 많았는데, 북한에 갔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마치 예전부터 알았던 사람들처럼 가깝고 편안하게 느껴졌어요”라고 이구동성으로 전한다.

거리의 깨끗함이나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이야기하며 “딱딱하고 어두운 분위기가 아니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자유롭고 밝아 보였어요”라고 평양의 분위기를 전하는 단원들에게 북한은 ‘어른들이 말하는 총부리를 겨누어하는 먼 나라’는 아닌 듯 했다.

북한에서 보낸 10일간 가장 인상깊었던 일을 묻자 단원들은 많은 것을 떠올렸다. 방북 첫날 북한 학생들이 인고왔던 가지각색의 블라우스부터 ‘어린이가 왕’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북한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만경대 학생소년 궁전을 방문했던 일, 어린이는 무조건 ‘공짜’라는 남한의 놀이동산 같은 ‘유희장’에 놀러갔던 일, 그리고 한사코 사양하는 북한 친구의 머리에 자신의 머리핀을 꽂아주었던 일까지.

“공연에서 마지막부분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를 부를 때였어요. 거기 공연 보러 오신 어른들이 함께 부르시다 우셨어요.” 아무래도 슬픈 기억이 깊게 남는 것일까? 어린 단원들은 잠시 목이 메이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슬픔과는 다르게 남한에서 또한 그들을 슬프게 하는 일

이 종종 있었다고 한다. “저희들은 정말 많이 재밌고 기쁘고 아쉽고 그래서 울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은 자꾸 와서 물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 아니냐고, 돌아와서 어른들의 질문을 받고 어른들은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조금의 서신과 왕래도 허락하지 않는 어른들이 정작 이 땅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분단 조국의 역사나 아픔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선입견과 독선에 가득한 민족주의의 잣대가 아닌가 기자는 부끄러운 자문도 해보았다.

“북한 학생들도 남한 학생들처럼 학교에서 수학, 영어, 한문, 과학 등의 과목을 배우고 저희들이 먹는 것과 같은 밥에 같은 반찬을 먹고 억양이 약간 다른지 하지만 우리의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같다’라는 단어가 힘을 주어 말하는 단원들은 북한 어린이들과 강한 동일감을 느꼈다고 한다. 어른들이 말하는 사상이 차이도 어른들이 질색하는 북한 사람들의 억양도 남·북한의 어린이들을 갈라놓는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덧붙이며 말한다.

통일이란 3·8선을 중심으로 쳐져 있는 철조망을 걷어내고 높이 솟아있는 벽들을 부숴 내는 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리틀엔젤스 단원들의 마음에는 통일은 이미 저만치 와 있었다. 이제 그들의 말처럼 어른들이 마음의 양금을 걷어내고 사상의 벽들을 부숴 내는 일만 남은 것이다.

전대기원 문화분과 공동기자단

## 달하나 천강에 하나의 의미



이 법산  
불교대학 불교학부 교수

하나는 참으로 귀중한 것이다. 모든 숫자의 시작은 하나로 부터이며 하나가 없다면 둘, 셋, 넷 등 무한대로 이어지는 숫자가 있을 수 없다.

'나'는 하나이다. '나'는 이 세상의 주인이다. 그러나 '나'는 세상의 모두와 더불어 존재할 때 생존하는 것이다.

'화엄경'은 불교경전 가운데 80권으로 가장 긴 책이며 최다 최고의 진리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일심(一心)' 즉 한 마음이다. 모든 우주법계는 한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한 마음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이 한 마음이 세상의 사물을 인식하고 이치를 이해한다. 한 마음은 모든 것과 더불어 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고, 이해하고 적용할 때 '나'는 살아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곧 여럿이요, 여럿 또한 하나이다. 한 물질은 모든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러 물질도 그와 같다"

화엄사상은 '한 마음'이란 나의 세계가 무한의 세계 속에 함께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나'란 나하나 만의 내가 아니다. 이 세상의 누구와도 함께 하고 어떤 것과도 더불어 할 때 '나'는 존재하고, '나'는 살아있고,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나'는 태양이 되어 이 세상 모든 생명을 따뜻하게 만져 주고 밝게 비추주며, '나'는 달이 되어 천개의 강, 만개의 호수에 그림자를 두리라.

'나'는 물이 되어 목마름을 적셔 주고 피를 돌게 해 주어 모든 생명을 푸르게 하며, '나'는 바람이 되어 모든 생명이 호흡하고 움직이게 하여 자연과 더불어하게 하리라는 마음을 가져 보자.

일천의 강에 물이 맑으면 하나 같이 맑은 달이 나타났듯이 우리의 마음이 맑고 밝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을 바로 볼 줄 알고, 모든 사실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라 모아서 여럿이 되고, 단체도 흩어지면 개인이 된다. 나의 마음, 나의 생명이 존재하므로 나의 소유가 있듯이, 하나 하나의 '나'가 모인 우리 가정, 우리 학교, 우리 사회 나아가 전 인류와 우주와 함께 생명을 같이 함에 있어서 '나'는 하나가 아닌 참으로 소중한 전체일 것이다.

### 현명한 소비를 위한 제언

## “계획짜서 한눈파는 경제인 되세요”

IMF한파 이후 심각한 대량실업과 물가 상승, 금리변화 등의 경제문제와 그에 따른 심리적 불안 상태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에서는 구조 조정이, 가계에서는 외식비 및 교양오락비등 소비를 줄임으로써 효과적인 지출을 하려는 소비구조의 변화와 소비의 규모를 조정하려는 소비지출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정된 용돈'이라는 자원을 어떻게 잘 배분하여 지출 구매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과연, 합리적인 소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번째로, 자신의 욕구와 목표를 명확히 파악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욕구와 목표에 따라 지출배분의 할당량이 달라지므로 욕구와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나의 가치가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인

지 명확하다면 지출 배분에 대한 그 해답은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신에 맞는 합리적 소비의 첫걸음인 것이다.

두번째는 소비자 정보를 적극 활용하라는 것이다. 소비자 정보란 소비자가 제품 및 서비스를 평가하여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말한다.

소비자 정보는 합리적인 소비생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각종 할인카드나 쿠폰이 그 한 예이다. 이렇듯 소비자 정보를 적절히 잘 이용하는 것이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소비의 방법이다. 또한 인터넷이나, 비록시장, 알뜰매장을 이용한 재활용 상품의 이용도 소비를 줄여나가는 소비자 정보의 하나이다.

세번째로 경제성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산출하기 위한, 그리고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다리 품을 팔아 상품비교를 하고 가격분석을 하여 최선의 구매를 한다든지, 소비자 교육이나 정보획득에 관련된 수업을 통해 정보지식을 증대시킴으로써 스스로의 경제개념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 소비를 위한 방법인 것이다.

위에서 말한 이러한 방법들은 결국 대학생 자신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가겠다는 각오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 요소들이다. 그렇기에 현명한 소비의 최대 해법은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타성에 의한 무분별한 소비'나 '허영과 불필요한 욕심'이 아닌 책임 있게 행동하는데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이상협  
기독교교육과 강사

# 영상매체비평

- TV편

KBS1 '용의 눈물'

“‘용의 눈물’의 흥행은 박정희 시대 삶에 대한 향수다”



지난 달 31일 종영된 '용의 눈물'은 역사드라마의 새 장을 열었다.

절대권력자 앞에서는 2인자란 없다. 절대권력자에게 모든 사람은 그의 복종자에 불과하다. 왕족, 고관, 평민, 노비 모두 그의 방종한 마음 아래에 있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고위층이 일반민에게 절대적인 존재지만 군주의 방종한 마음 앞에서는 그들 모두 무력한 존재인 것이다.

우리는 그 예를 태종 이방원에게서 볼 수 있다. 방원은 3차례에 걸친 부자, 형제 간의 유혈권력투쟁에서 승리하여 권좌에 올랐다. 그는 천하를 얻었지만 그것을 유지 확보하기 위한 마음고생에 시달려야 했으며, 어떻게 해서든 그의 왕국을 자손만대에 전하겠다는 야심만 남아 있었다. 따라서 그는 왕실에 미래의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권신과 외척의 숙청을 단행하였다. 그래서 절대군주의 지배를 받는 사회에서 민(民)이 더 안정감을 가진다.

절대군주의 탄압대상이란 민이 아니라 최상층부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자 아래에서의 민들의 삶이다.

'용의 눈물'의 흥행은 1인 독재자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박정희 시대의 삶에 대한 향수이다.

현재 우리는 민주화의 길목에 도달했지만, 우리를 맞이한 것은 경제파탄이라는 공황이었다. 박정희 시대는 현재적 의미의 자유는 없었지만 지금처럼 고독하거나 고립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개발 독재기에는 지금보다 실업자는 많지 않았다. 실사 있다고 해도 산업이 팽창하고 있었기에 취직할 수 있는 희망도 있었고, 현장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 그 사람에게 안정감과 소속감이 주어졌다.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규제와 착취도 있었

지만 각 개인은 경제적 상승을 위해 희망을 가지고 자유롭게 본분에 종사할 수 있었다. 당시 일반국민에게 박정희는 의욕과 공포의 대상이리라 보다는 오히려 조선국왕처럼 신뢰와 애정의 대상이었다.

당시 오일쇼크라는 공황도 있었지만 차를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소비가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적 절약으로도 버틸 수 있었다. 경제가 고도로 발달하지 않았기에 그 충격도 그만큼 크지 않았던 것이다. 권위주의 독재정권에 압박을 받던 지식인과 정치가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들을 국민전체에 비교하면 극소수였다. 독재자로부터의 압박은 일반국민들이 전혀 느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공황으로부터 받는 압박은 유지된 아동의 주머니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파장이 크다. 아무런 생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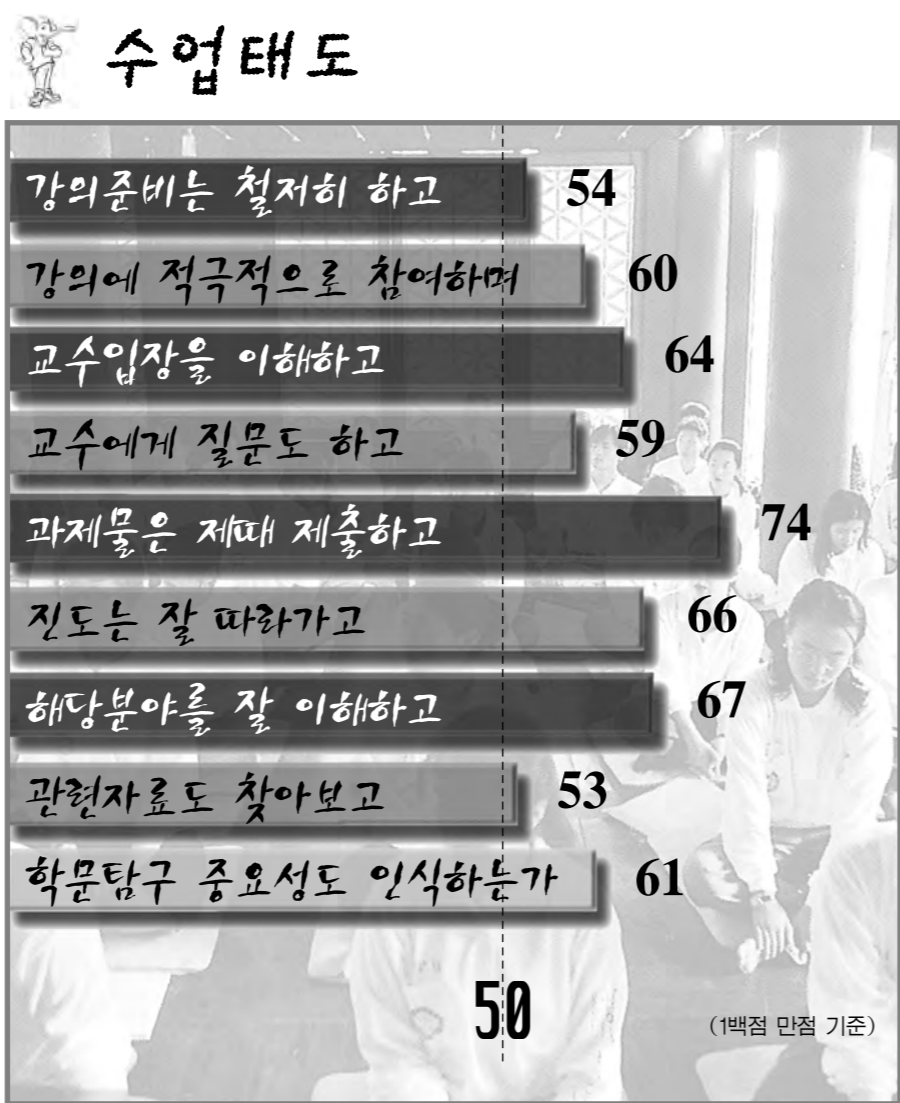
없는 아이들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경제공황은 모던(Mordem)의 가장 큰 특징이다. 지금 일각에선 포스트모던(Post Mordem)을 운운하고 있지만, 지금에 와서야 우리는 모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의 의식도 그만큼 합리화될 것은 확실하다.

모던이란 우리의 모든 인간적 유대관계의 폭을 핵가족 이내로 축소시키며,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만들어 놓았다. 서구적 모던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에게 불확실한 미래란 건디기 힘든 변화일 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용의 눈물'은 권위주의적 독재시대에 가나했지만 안정적인 우리들의 삶을 회상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서영교  
본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본사가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1:1 면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본교 교수(전임강사 이상) 5백 98명(서울 3백 17명, 경주 2백 81명) 중 1백 69명(서울 71명, 경주 89명)이 응답해 전체교수 중 26.7%의 응답율을 보였다. 편집자

# 학생 반성할 기회를 잡아라!



## “소극적 태도 안타깝다” 학생자각 필요할 때

매학기가 끝날 즈음이면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린다. “교수의 강의 준비가 철저한가?” 학생들을 ‘배우 그렇다’에서 ‘전혀 아니다’까지 설문지에 5에서 1점까지 점수를 매긴다. 근래 3~4년 동안 교수의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즈음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학생들의 강의 준비는 철저한가?”

본교 교수들은 5점 만점에 2.70점, 즉 100점 만점에서 54점을 배점했다. 그리 나쁜 점수는 아니다. 중간(?)을 넘기는 했으니까.

이번 설문조사 결과 교수들은 학생들의 생활태도 부분에 60점을 배점(1백점 만점 기준)했고 수업태도에 62.5점을 배점(1백점 만점 기준)해 생활태도나 수업태도에 있어 보통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학생들에게 다시 되물으면 어떨까? 자신의 생활태도와 수업태도를 점수화 한다면 말이다.

동국의 학생들의 자각이 필요한 때이다. 한 학기를 마치며 여름방학을 분주히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남은 것은 학점에 대한 확신일 것이다. A를 찾아다니고 후시 F는 없나 걱정을 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한 학기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

한 학기동안 정말 성실히 수업에 임하고 임상을 충실히 수행해 왔는지 혹은 안일에 빠져 수업을 기피하고 자신의 시간을

갖는다는 핑계로 하루하루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할 기회도 없다는 말이다.

“학기 중에도? 그냥 수업 듣고 리포트 쓰고 시험 치고 다들 그정도 하고 있지 않나요?”

생자대 한 학생의 말에서 기자는 본교 학생들이 하루하루를 얼마나 열의와 열정으로 살아가는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학생들이 많이 가벼워지고 힘이 없어. 그에 따라 치열하게 살려는 의지나 자신이 알고 싶은 지식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은 점차 찾아볼 수 없게됐지. 그게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싶어.”

사회학과 강정구 교수는 본교 학생들 뿐만 아닌 전체 대학생들의 변화에 대해 간략히 안타까운 점을 전했다.

교수들의 눈이 학생을 평가하는 완성된 잣대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르치는 선생으로 혹은 은혜를 베푸는 스승으로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이들이 학생들의 장단점을 가려 조언한다면 이는 충분히 귀기울일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한학기를 마치고 2달여 긴 방학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다시 한 학기가, 혹은 몇 년의 학교생활이 남아있다. 이제 좀 자신의 학교생활과 평소생활을 반성해 보고 새로운 계획을 준비해 보는 어떨까...

최진 기자

## ‘학생 생활에 대한 교수의견’ 설문 내용

- ### 생활태도
- 성실성- 얼마나 거짓이 없고 참된가?
  - 근면성- 얼마나 부지런한가?
  - 인사성- 얼마나 예의바른가?
  - 준법성- 얼마나 법을 올바르게 지키는가?
  - 절약성- 얼마나 불건을 아껴쓰는가?

- ### 수업태도
- #### 수업방법
1. 강의 준비가 철저하다.
  2. 강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한다.

- #### 교수와의 관계
1. 교수입장을 이해하려 한다.
  2. 자유롭게 질문·토론·비판을 할 수 있다.

- #### 수업 부담수행
1. 과제를 부과시 적절한 회수와 양을 보인다.
  2. 강의 계획서대로 진도를 잘 따른다.

- #### 학생효과와 교수성취도
1. 해당분야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한다.
  2. 해당분야와 관련된 책자와 자료를 찾아온다.
  3. 해당분야 학문탐구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교수들이 보는 학생들

<h3>장점</h3> <p>△성실함과 매사 진지한 태도로 모든 일을 다룬다.</p> <p>△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력이 빠르고, 수업태도가 바르다.</p> <p>△관심있는 분야는 열심히 몰두한다.</p> <p>△적지 않은 학생들이 학문과 인생 설계에 있어 진지하다.</p> <p>△자신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p> <p>△교수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노력 및 자유로운 토론의 유도시에 활발한 의견 개진.</p> <p>△사물을 보는 관점이 비교적 긍정적임.</p> <p>△우애가 있으며, 단결력이 강하다.</p> <p>△대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착하다.</p> <p>△전반적으로 성격이 밝고 인정이 많다.</p> <p>△인사성이 좋고, 자유분방하다.</p> <p>△타교에 비해 순수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는 것 같다.</p> <p>△예의가 바르고 주어진 일에 열중하는 편이다.</p>	<h3>단점</h3> <p>△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가 아쉽다. 기존 권위에 대한 도전 정신이 부족하다.</p> <p>△학부제 이후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학문에 대한 열정이 떨어짐.</p> <p>△지성인 답지 않은 언행을 보일 때가 있다.</p> <p>△어학 능력이 전반적으로 취약함. 권닝, 무단 인용등 과제물·시험등에서 부정직한 행위자가 일부 눈에 띈.</p> <p>△응집력이 약하다.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약하다.</p> <p>△질서외의 결여. 매사에 맞고 끊는 점이 부족.</p> <p>△학업태도가 능동적이지 않으며, 정보에 약하다.</p> <p>△과소비 경향이 짙으며, 학문에 대한 열의가 부족하다.</p> <p>△여가시간 이용에 인색하다.</p> <p>△지역성을 탈피하려는 추진력, 진취성이 부족하다.</p> <p>△이기적이며 남에 대한 배려가 없다.</p>
--	---

## 생활태도



## 메아리 기습작전

▲1941년 12월 8일 동이 트기전 일본 해군의 항공대 및 특수 잠항정은 미국 하와이 진주만의 태평양 함대에 대하여 기습공격을 가했다. 이 공격이 태평양전쟁을 발발시킨 진주만 공격이다. 전쟁 초기에는 일본군이 우세하여 남양 여러 지역을 점령하였으나, 미드웨이해전을 계기로 일본 해군은 거의 전멸되고 미군은 반격으로 전환, 1944년까지 대부분의 피점령 지구를

탈환하였으며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의 원자탄 투하와 소련의 참전으로 일본은 드디어 그 해 8월15일 무조건 항복하였다. 이 전쟁의 결과로 일본은 군국주의로부터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하게 되었다.

▲지난 달 29일 진주만 공격에 버금갈 기습작전이 서울 시내에서 펼쳐졌다. 출범식을 성사시키기 위해 한총련은 당초 5월 30일, 31일 양일간 한양대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제6기 한총련출범식을 하루 앞당겨 서울대에서 약식으로 개최했다.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과 한총련 출범식 참가자 전원 검거령으로 출범식을 원천봉쇄하는 정부의 방침 하에 한총련은 장소와 시간을 상변할 방식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이 사실이다.

▲출범식 장소인 서울대의 총학생회 또한 한총련 출범식이 자기 학교에서 치러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못했고 또한 한총련출범식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나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학생회 연합체기구로서, 한국 학생 대중운동의 대표체로서 자임하는 한총련이 단지 의장 올림과 출범식 선언문을 낭독하는 것만으로 과연 공안탄압을 뚫고 승리했다고 자신감있게 말할 수 있을까?

▲학생운동 위기와 침체라는 작금의 현실

## 잡은소식

### 학교 안에서

#### 세일즈맨의 죽음

본교 연극영상학부 4학년생들의 연극제작 실습작품. 아서 밀러 원작으로 능률과 능력만이 최고로 여겨지는 물질문명사회에서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도시민의 절망을 다룬 극이다.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오후 7시, 5일 오후 8시. 학술문화관 62스튜디오에서.

### 만화일 상영회

본교 만화동아리 '만화일' 정기 상영회. 특히 2일 상영작 '음용공주와 도둑'은 소수자본으로 제작된 반(反)디즈니 작품이며, '바다가 들린다'는 미야자키 히야오의 유일한 TV용 애니메이션이다. 오는 2일 3시 '음용공주와 도둑'·6시 '바다가 들린다'. 3일 3시 '슬레이어즈 스페셜'·6시 '퍼펙트블루' 상영. 본관 중앙당에서.

### 학교 밖에서

#### 푸른음악회

전국 언론노동조합연합회 주최, 해직언론인 돕기 언론기금마련을 위한 자선콘서트. 신승훈, 박진영, 유승준 등 인기가수들이 출연하며 전·현직 언론인과의 대화시간도 있다. 수익금은 해직된 언론인들의 복직과 참언론 실천을 위한 기금으로 쓰인다. 오는 13일 3시 장충체육관에서. 일반석 1만2천원, 특별석 2만원. 예매문의 260-3611(총학사무국)

#### 동국음악회 춘계콘서트

경주캠 동국음악회가 제 35회 춘계콘서트를 갖는다. 변명, 그들이 사랑하기까지, 하나의 사랑, 너의 집앞에서, 동음이 등의 노래로 이번 콘서트를 장식한다. 오는 2일 오후 6시반, 서리별 문화회관에서.

#### ROCKIN SHILLA

메탈을 사랑하는 모든이들의 모임 메탈 보이스가 8주년 기념 제3회 'ROCKIN SHILLA'를 개최한다. '블랙신드롭'의 공연을 중심으로 97대학 가요제 대상 수상팀 'SKIP'과 경주캠 한의대 메탈밴드 '베리디안스' 등이 출연한다. 오는 7일 오후 7시, 경주대학교 강당에서. 문의 (0561) 42-1687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4~5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TEL: 2603491-2 / (0561) 7702057-8 FAX: 2791270 PC ID: dgpress

소나기

6.4 지방선거



△이번엔 제대로 뽑읍시다. 뒤에서 잘못했다 욕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사람, 제대로 뽑읍시다. △지방선거 선거하기 △내가 될 곳은... -이복 월남자 △그들만의 리그, 그놈끼리의 6·4 △지방선거에서 선거하기 △선거날은 우리에게 국민의 권리를 주는 날인가? 노는 날인가?

△6월4일, 아외로 가는 발걸음을 선거구로. 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언제 선거하는지도 몰랐는데요. △뽑아야죠. 누구든지. 아니. 꼭 그 사람을 △우리 지방이 바뀔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말자. △요즘을 거리에 온통 선거 유세인데, 너무 많아 누가 누구지 헷갈립니다. △무슨 후보는 그리 많은지, 다 돈이 남는가 봅니다.

△슬슬이 선거 비용이면 어려운 경우 주민 엄청 살뜰텐데. △뽑아 달라 사정해서 뽑아 주면, 뽑힌 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큰소리니 원. △대통령 선거와 다를 바 없다. 정치인이 다 그렇지 뭐. △뽑히기 전에는 모두에게 천사, 뽑힌 후에는?

△똥(중앙)정치가 막아야 아랫(지방)정치가 막다. △지방자치와 과연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선거 때만 요란하고 끝나면 조용. △후보가 너무 많아 제대로 기억하고 뽑을지 걱정이다. 그 사람이 그 번호 맞는지?

△어떤 선거든 국민은 꼭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 정치가 이렇게 된 것에는 국민의 책임도 있는거니깐요.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투표는 꼭 해야 합니다. △중앙의 지방화, 지방의 중앙화! △정부는 국민의 피뎠아 먹는 거머리다. 우린 거머리 키울 자신 없다. 차라리 슈퍼 개구리나 양생하던가. △나라님들 잘먹고 잘 논다. 국민은 놀러 간다.

△이번에는 지방을 책임질 수 있는 지방인이 나와야 할텐데. △환난 책임자(?)도 나오는 구나. 서울 어느 구에. △갈게 정치 불신으로 인해 별 관심이 없다.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

다양한 학생·보리수 식당 차림표

Table with 2 columns: Day (월, 화, 수, 목, 금, 토) and Menu items (e.g., 치킨까스, 소고기이채밥, 피자, 떡볶이, 김치,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동국관 교직원·학생식당 차림표

Table with 2 columns: Day (월, 화, 수, 목, 금) and Menu items (e.g., 순두부찌개, 아구찜, 생선까스, 김치,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오수길 박영석 (체고 91 줄·(주) 에베레스트투어 운영) '나'와 싸우며 산에 오른다. "정상에 서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기쁩니다"라며 다소 심경(?) 정상에 올랐을 때의 기쁨을 말하는 산악인 박영석(체고 91 줄)씨. 히말라야 8천미터 고봉 14 곳 중 세계최초로 1년 동안 6개의 고봉을 올라 주목받은 그는 지난해 자랑스런 동국인 90명 중 한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그는 (주) 에베레스트 투어라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장을 '놀이터'라고 설명할 만큼 자신의 일을 즐기고 있다.

"동대인 자부심 갖자" 계획과 실천이 지름길

우리학교는 1906년부터 내려 온 역사와 전통이 있으며, 열정적인 총장님을 비롯하여 훌륭한 교수님, 생기있고 재능있는 학생들, 철저하고 능력있는 행정분야의 여러 선생님들도 있다. 자부심이란, 스스로 자기 가치나 능력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는 것으로 마음에 관한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자부심을 갖는 방법은 이렇다. 첫째, '지금 세계는 어떻게 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떠한 미래환경은 어떠한가?' 이에 따라 10년 후의 나의 모습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어떠한 공부를 어떻게 하고 어떠한 능력을 키울 것인가? 등을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자. 둘째, 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교수님, 전문가, 선배님, 게시판, 신문, 통신타, 인터넷 등으로 정보를 모으자. 특히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은 게시판을 꼭 참고하자. 이렇게 나의 계획을 점점 구체화하면서, 1년 계획 및 매주 계획을 지키도록 철저히 노력하자. 노력하면 계획이 실현되어 가는 확신이 생기고, 자신이 생기며, 따라서 더욱 노력하면 된다. 자신감은 자부심에서 연결되고, 자부심이 있어야 사회에 봉사할 수도 있고 만물에 자부심을 베풀 수도 있다. '계획'과 '노력' 들고 보면 다 아는 얘기지만 쉽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어렵지도 않을 것이다.

동대인으로서 계획과 노력으로 자부심을 갖자. 신하균 (교무처 학적과)

나의 존재 일깨운 자원봉사 소중한 사회경험 쌓아

어느새 4학년이 되었다. 금금한 것도 많았고 하고 싶었던 것도 많았던 것에 비해 3년이 조금 넘는 시간을 그리 길게 보내지 못했다. 그러던 중 봉사활동에 관한 안내문을 보았고, 레포트와 아르바이트에 빼앗겼던 시간을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활용해 보자는 생각에서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되었다.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곳, 여기저기를 살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차에 사회과학 도서관을 선택했다.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잠깐 동안 학교 도서관에서 일했던 경험도 있고 해서 잘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 섰다. 적어도 내 노력이 폐가 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신청을 했다. 나는 열람봉사와 자료정리를 주로 했다. 통신을 통해 도서열람을 할 수 있도록 신착도서 컴퓨터 입력작업을 했고 도

서들을 분류정리해 시간시간마다 이용한 도서들을 제 위치에 배열하는 등의 일을 끊임없이 했다. 최대한 친절하도록 노력했고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성심성의껏 대답했다. 보수를 받고 하는 일이 아니었음에도 스스로가 봉사활동이라는 보람있는 일을 한다는 생각에 더욱 친절할 자세로 임하고자 노력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봉사활동을 하느라 힘도 들고 피곤하기도 했지만 예비사회인으로서 사회인의 자세를 먼저 배울 수 있었으며 타인을 대하는 마음을 가다듬었던 시간들이었기에 정말로 소중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시간으로 기억된다. 이번일은 내가 사회에 보탬이 된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해 준 기회였다. 박보영 (문과대 국문과)

중 한가지를 우리 모든 구성원에게 제안하고자 한다. 과거에는 방학중에 시간표를 작성했기 때문에 시간표의 정정요인이 다수 생겼고, 개학직전에 학생들에게 수강신청하게 해 개학을 전후해서 학사업무가 집중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86년, 구성원들의 합의로 방학 전 수강신청을 받아 개강과 동시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게끔 수강신청제도를 도입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면학분위기 쇠퇴를 위한 선수강신청제도의 취지는 거의 사라진 채 오히려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만 초래하는 무의미한 제도가 되어 버린 것이다. 학생들은 개강 후 우왕좌왕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강신청일자를 엄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수강정정 원인이 전적으로 학생들의 성의부족에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적어도 모든 구성원들이 약간씩만 노력한다면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진형 (교무과 수업계장)

방학전 수강신청으로 면학분위기 쇠신하자

우리 캠퍼스가 경주에 자리한 지 어느새 2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수업 업무와 관련하여 평소 생각해오던, 아직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

새벽이슬 - 출범식을 앞두고 1. 달렸다 숨을 몰아쉬며 동지들과 함께 거리를 달렸다 어느덧 해는 다리위로 떠올랐고 다리를 지나 이제 막 밝아오는 해를 등지고 달렸다 검은 벽이 총칼등고 막고 있는 저 철문을 향해 자주로 향하는 백만대오의 장으로 2. 숨이 가빠다 목구멍이 달아올랐다 엄청난 피로에 젖어 눈을 감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언제 나에게 이런 눈물이 있었던가 끝없이 흘러내렸다 비록 우리를 막은 식민지 조국의 장벽은 넘지 못했다 그러나 벗어 우리 올지는 말자 좌절하지도 말자 동터오는 새벽 우리의 땅을 울려라 이쁜 아침을 여는 저 민중들의 가슴 속에 맺힌 새벽이슬을 보자 슬픔을 이겨내고 영롱히 빛나는 혁명의 씨앗들 3. 벗 이름만으로도 위안이 되어주는 나의 소중한 이여 그대 이제 출정을 준비함에 혁명의 거리위로 떠나는 이여 무릎질 봄밭과 진달래 향기 사이로 귀가하는 그대와 함께하는 이길은 결코 슬픔으로 얼룩진 않을 것입니다 민족의 운명을 한 품에 안아 출정하는 이여 귀가하는 그대와 함께하는 이길은 결코 슬픔으로 얼룩진 않을 것입니다 민족의 운명을 한 품에 안아 출정하는 이여 그대 가슴이 불타는 햇불되어 조국의 미래를 개척하라. 임상선 (사범대 국어교육과)



동약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단번에 단번 받은 사회과 38기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회과 37기 군기·원장 △회계 98 진행이의 언연 일회를 축하합니다. 열심히. -언론문화 연구회 97·98 △비록 며칠 늦었지만 5월 29일은 하나 밖에 없는 남회장의 생일입니다. 축하~ -경행과 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민족사회화 세미나 같이 한 마거리씨, 야스요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열이 형·형우·경화도 마찬가지로. -우우한 △사학과 동문체육대회를 멋지게 치러낸 운위집부 여러분 많은 선배님·후배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WOLF △공연한다고 고생하신 탈 98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늘 마음·몸 건강 해라. -너희를 사랑하는 형우

동 달 이 김경일 (10)

자, 피우시 마스 켜이 우리 사원에... 미치는 영향은 한마디로... 누가 지구 수면에 지장을 줘니까? 수업시간에 꼭 진동으로!

△아리랑 '위기' 공연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착한 사람들의 모임 봉사동아리 '길' 봉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말고사 잘 보세요~. -은지, 수연 98 △지나야. 공연하느라, '고생길' 쓰느라 수고했당.

열심히 하시다 △주한아, 열심히 살자! 4월이 잔인했다고 너는 말했지. -짱 △이젠 정말 열심히 살자~. -나 △공 방학입니다. 즐거운 방학을 위해 기말 시험을 잘 치러야겠지요?

그리고... △아름다운 속의 고요함이여 보고싶다. -법 95 HAN △꼭 네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되기를 바란다. △방학전에 술 한잔 합시다. -부평항우회 K형님이 △'합학'에 무지 들고 시편대 춤은 잘못

추지만, 방법 좀 가르켜 주. -가 98 △참영동아리가 여러분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업회장

원망글

축하합니다 △불교 학생회 후배님들 생일 축하 드립니다. -짱 △세화선배랑 은희의 2백일을 축하하며, 더 많이 사랑하고 행복하세요. -천사 △총대의 만과 천이 드디어 연애의 기쁨을 느낍니다. 모두들 따뜻한 관심을... -토할 14기 공주 △4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당구치는 철수. 대취야 열심히 해서 80으로 올리기 바란 다. -당구 동우회 일동

열심히 하시다 △문화개론 M·K학생 분발해라. -2점이 뭐야? 방학 때 재수강. 그때 봐요. -Y·M △토함 무조건 화이팅이다. 잘해 보자. △4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당구치는 철수. 대취야 열심히 해서 80으로 올리기 바란 다. -당구 동우회 일동

알립니다 △6월4일 슬메리아 정기 공연합니다. 장소는 옥야실이구요. 마니 마니 오세요. △뮤트피아 콘서트 3일 있습니다. 많이

△진로 하우스 여러분 환학기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학기를 기약하며. -301호 일동 △동목회 여러분 경사대회하느라 수고하 셧어요. -19기 못별이 △인문과학대 학생회 원효관 재진격 투쟁. 환영합니다. -인문대 일반 학우 △인문학과 불뿔 주막 많이 수고하셧어요.

열심히 하시다 △문화개론 M·K학생 분발해라. -2점이 뭐야? 방학 때 재수강. 그때 봐요. -Y·M △토함 무조건 화이팅이다. 잘해 보자. △4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당구치는 철수. 대취야 열심히 해서 80으로 올리기 바란 다. -당구 동우회 일동

알립니다 △6월4일 슬메리아 정기 공연합니다. 장소는 옥야실이구요. 마니 마니 오세요. △뮤트피아 콘서트 3일 있습니다. 많이

오세요. -Potato 올림 △회계학과 야구부 A의 동국기 야구 대회 우승을 기원하며 동국대 학우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졸업생 및 예정자

그리고... △96국-관 보영이가 배 췌대요. 우리 모두 보영이의 쾌유를 기원합시다. -국·관 삼췌의 요정

△신승이야, 항상 밝게 웃고, 니 옆에 항상 내가 있다는 거 잊지마. -정이 △경야야, 종강이러니 방학 잘 보내라. 사랑해. -관·경4 Y·S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되면 작은사랑은 더 작아지고 큰사랑은 더 커진다. -큰사랑 하는 이

△늘은 유도부 신입부원들, 힘들면 참지 말고 나가요. △항상 먼 곳을 바라보며 생활합시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은 진짜 넓고, 할 일은 정말 많거든요.

-9878 △힘들게 써주신거 정말 감사드려요. 덕분에 무사했습니다. -의뢰인